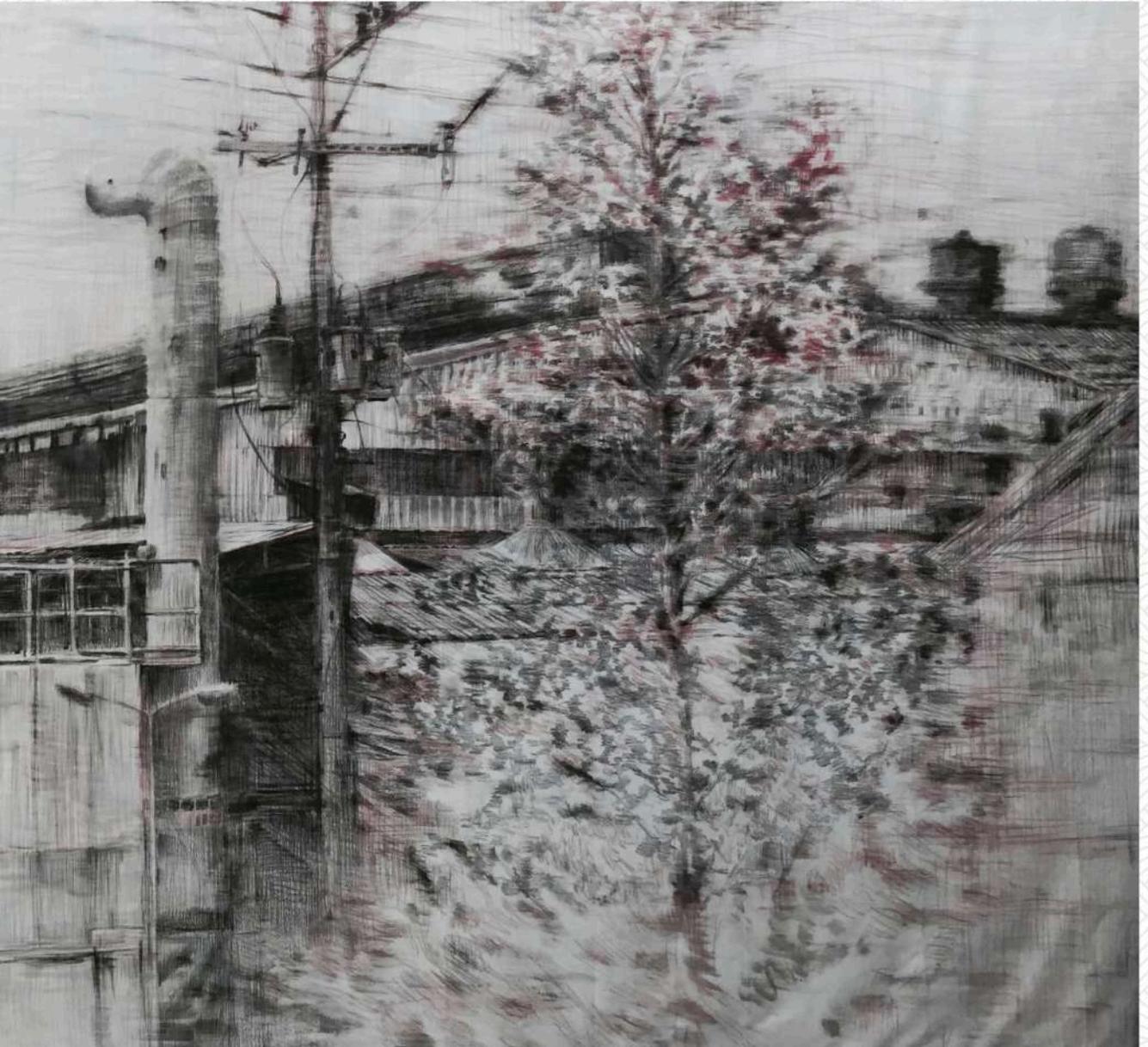


# 공감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24 Spring 2017



## 작가노트

홍티아트센터 인근 공단 풍경은 마치 살갓처럼 얇고 삭막하다.  
풍경 이미지들은 어떤 기억의 잔재로부터 보이는 현상을 인식하게 한다.

작품이 된다는 것,  
오롯이 나의 시각이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단지 하나의 그림으로 응시됨을 발견하게 한다.

Wouldn't it be a blue flower?



grope around in the darkness, oil on paper, 2016



layred round, printing images(eh), 2016



layred round, colored pencil on cloth, 2016

공민경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24 Spring 2017

표지작가

감민경 작가  
Kam Min-kyung

1970년 부산출생

개인전

- 2016 'Wouldn't it be a blue flower' (홍티아트센터, 부산), (큐슈예문관, 일본) 등
- 2013 'visible in invisible' (아트페이스 H, 서울)
- 2013 'basic-basis'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기획전 및 단체전

- 2016 창작공간 페스티벌 'sensible reality', [서울시민청, 서울]
- 2016 '즉흥과 숙성', [홍티아트센터, 부산]
- 2016 '3행성'-아트큐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상암DMC, 서울]
- 2016 '대안공간반디를 기억하다'.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레지던시

- 2017 독일 쿤스트러하우스 베타니엔
- 2016 홍티아트센터, 부산 / 큐슈예문관, 후쿠오카 일본
- 2014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 CONTENTS

## # 여는글

06 이양하와 부산 그리고 청춘 동길산

## #1 말문을 엿다

14 부산문화재단 변혁을 꿈꾸다 정달식

20 '응시'의 기술을 깨우는 새로운 화면들  
- 작가 김민경과의 인터뷰 김영준

28 우리는 진정 춤추고 싶습니다 최찬열

34 부산스런 인터뷰 국내 유일 지역 중심 대중음악 잡지를 만드는 사람  
- 부직페이퍼 편집장 김혜린을 만나다 방호정

40 도심수변에 도시문화 레스토랑으로 레시피를 채우다 홍순연

44 예술, 교육으로 말하기 이미연

## #2 문화 돋보기 I

52 문화예술분야 창업, 문화다원주의로 차재근

58 예술가들의 창업, 창작에 관한 조명 김정주

## #3 문화 돋보기 II

62 없는 길 찾아 떠나는 예술가의 여정에 짚신을 삼다 황해순

## #4 속살을 보다

68 [창작발견] <도시,美를 입히다>에 담긴 도시이야기 조성태

72 [사각예술] 홀리스의 도시, 차별과 배제의 공간:  
김해 미술미술관의 <홀리스의 도시: The City of Homeless> 김지호

76 [예술기획] '청년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비밀기지를 통해 본 청년 문화의 시급한 고민들 박진영

82 [공연예술] 정과 자존심으로 살아온 국악 예술인들의 삶  
- 국악극 대창여관 정영진

## #5 손을 잡다

86 소리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없다 팽명도

## #6 재단은 지금

88 재단은 지금

94 감만동의 재발견,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 이일록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24 Spring 2017

동권 24호 장기간행물(부산광역시 바 01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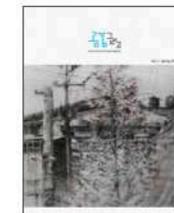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7. 5. 8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구분호, 김희진, 동길산, 방호정, 이성훈, 정민정

편집기획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디자인·제작 MANBO-DESIGN



부산문화재단 '공감 그리고', 24호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 이양하와 부산, 그리고 청춘

글 | 동길산 시인 · 본지 편집위원

이양하(1904~1963)는 영문학자였다.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를 지냈다. 수필을 잘 썼다. 내 고교 시절 교과서에 실렸던 <신록예찬>은 수필의 바이블이었다. 대입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 달달 외워야 했다. '나무는 덕을 지녔다'로 시작하는 <나무>도 이양하 수필의 단아한 격조를 드러낸다. 이양하는 생전 한 권의 수필집만 냈다. 자신의 수필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이유도 있겠지만 환갑도 채우지 못하고 타계한 연유가 컸다. 학교를 은퇴하고 집에 칩거하면서 글을 쓰고 싶었다는 생전의 바람을 생각하면 우리 수필 문학의 큰 손실이다. <이양하 수필집>. 이양하가 생전에 펴낸 수필집 제목이다. 1947년 나왔다. 타계 한 해 후인 1964년 나온 제2수필집 <나무>, 타계 9주년에 즈음해 1972년 <이양하 수필선>, 타계 15주년을 맞아 1978년 <이양하 미수록 수필선>이 있다. 제2수필집에는 실렸지만 두 권의 수필선에는 빠진 작품 중에 <길에 관하여>가 있다.

'여기 예외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구덕산과 구덕산 남쪽 산 사이의 저수지 있는 데로 넘어가는 한 오리 길이다. 이 고개 이름은 알지 못하나 학교에 가느라고 대신동 길을 걸어가면 항상 뻗어 쳐다보이는 고갯길인데 이 길만은 어쩐지 아름답게 보인다. 이 고갯길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나 하나뿐이 아닌 모양이어서 어떤 날 이 길 얘기를 같이 가던 학생에게 하였더니 그 학생은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희망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희망의 길, 잘된 말이다. 별명 잘 짓기로 유명한 학생들 솜씨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잘된 이름이다.'

이양하 수필 <길에 관하여> 일부다. 두 권의 수필선은 1970년대 문고판으로 나와 대중적 인기를 끈 반면 1960년대 단행본으로 나온 제2수필집은 덜 알려졌다. 그래서 이양하와 부산은 별 연고가 없다고들 알고 있다. 그런 일반의 인식과 달리 이양하는 1년 반을 부산에서 지냈다. 부산에 살을 맞대고 산 기록이 <길에 관하여>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양하는 부산으로 피난 왔다. 구덕산과 맞닿은 대신동 서울대 천막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이양하 부산생활은 고단했다. 고단함은 수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부산 살림 1년 반 아주 재미를 보지 못했다'로 운을 댄 수필은 '바람이 일든가 하면 먼지 길길이 일어서 기둥도 되고 탄넬도 되'는 부산 길의 난맥상을 통해 피난 생활의 고달픈 심사를 토로한다. 동래 뒷산 길 없는 비탈을 내려오다 발을 빼고 엮어진 일화도 고단한 기억을 거든다. 내가 아쉬운 건 이양하의 부산생활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진작 알았다면 내 고교 시절 기계적으로 달달 외웠던 <신록예찬>이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이다. 출신고가 대신동에 있어 아쉬움은 더욱 크다. 이양하가 걸었을 구덕산 수원지 길을 거닐면서 수필을 외웠다면 얼마나 인간적이었을까. <서재여적(書齋餘滴)>은 수필 <길에 관하여>가 처음 실린 책이다. 대학교수 17인이 참가

한 수필집으로 1958년 나왔다. 피천득 '수필'을 필두로 박종화, 양주동, 주요섭, 유진오, 이병도, 이희승, 이한구, 이하윤 등의 '대학교수 명문장가' 집필이 이어진다. 이양하는 해방도덕, 길에 관하여, 험구험담에 관하여, 무궁화 네 편의 수필을 쓴다. <길에 관하여>는 2000년대 들어 비로소 일반에 알려진다. 2009년 현대문학 발간 <이양하 수필전집>이 그것이다.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고문인 선집발간 지원사업의 하나로 부경대 송명희 교수가 엮었다. 이 전집에는 <서재여적>에 실렸던 이양하 수필 네 편이 모두 실렸다. 하마터면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이양하와 부산의 관계가 이로써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양하 부산생활이 고단했듯 피난학생 처지 역시 고단했다. 전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지향할 바를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고단한 청춘이었다. 청춘의 눈앞에서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며 펼쳐진 구덕산 고갯길은 그나마 '희망의 길'이었다. 그리하여 수필은 희망의 절정으로 치달는다. '우리의 고갯길이 한두 사람이 다녀서 난 길이 아니고 몇천 사람 몇만 사람이 다녀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길도 어떤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많은 사람의 실지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공감 그리고' 불호는 청춘에 초점을 맞추었다. 발랄하지만 고단한 청춘, 고단하지만 발랄한 청춘이 불호의 처음과 끝을 매웠다. 춤추고 싶으나 춤에 전념하지 못하는 청춘을 들여다봤으며, 청년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청춘을 들여다봤다. 남이 원하는 완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완성이로 나아가는 청춘을 들여다봤으며 자신만의 목소리로 한국 유일의 지역 중심 대중음악 집지를 지향하는 청춘을 들여다봤다. '소리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다'는 절규는 속살을 저미는 한편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소중함을 각인하게 한다. 지금은 신록의 계절. 이양하 수필 한 구절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청년작가 아트페어 UNDER 35



# 말 를 - 열다

14

# 부산문화재단, 변혁을 꿈꾸다 정달식

20

# '응시'의 기술을 깨우는 새로운 화면들 김영준

28

# 우리는 진정 춤추고 싶습니다 최찬열

34

# 뷰직페이퍼 편집장 김혜린을 만나다 방호정

40

# 도심수변에 도시문화 레스토랑으로 레시피를 채우다 홍순연

44

# 예술, 교육으로 말하기 이미연



# 부산문화재단, 변혁을 꿈꾸다

글 | 정달식 · 부산일보 문화부장 <도시, 변혁을 꿈꾸다> 저자



문화는 자율이다. 창의적 예술, 창의적 문화는 자율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2009년 설립된 부산문화재단은 과연 자율성과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는가?



## 그래도 자율! 늦지 않았다

관 주도 문화정책은 문화발전엔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다. 안타깝게도 부산문화재단 역시 여전히 관 주도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지역에서 발의되고 창안된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사업보다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발의해 위탁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단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나 예산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6년도 부산문화재단의 수입 구조를 보자.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출연한 사업비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사업비를 합치면 전체 수입의 90%가 넘는다. 다시 말해, 재단의 사업 중 열의 아홉은 위탁 업무라는 얘기다. 자체 예산으로 펼치는 사업 규모는 300억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율성, 독립성의 상실은 재단 운영 시스템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민간 이사장제의 상실이다. 어느 순간 흐지부지돼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독립성 자율성을 견지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부산문화재단은 결국 '시 사업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시 사업소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현재 시와 문화재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지원 시스템을 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부산 문화진흥을 이끌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재단에 보다 많은 재량을 주어야 한다. 부산시는 예산, 인력, 권한과 같은 기본적인 부문을 재단에 제공,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정책 입안과 집행의 주체로서 재

단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최소화하고 모든 예산은 재단에 이관해 재단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재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필요한 재원은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요컨대 문화재단에 문화정책의 개발이나 심의 그리고 집행 등이 실질적으로 위임되는 자율성과 함께 문화 행정의 유연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는 일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필요한 예산도 통합예산으로 문화재단에 위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 예산지원 방식도 기존의 나눠주기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단은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능성 있는 시민 예술단체를 발굴·지원함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의 판에 박힌 지원 방식 역시 과감히 바꿔야 한다. 고만고만한 지원금에 고만고만한 기획을 하니 고만고만한 공연을 만든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은 뚜렷하게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기획 공모 등의 형태로 지원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창작물이 있으면 사후에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큰 틀의 행정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예술적 완성도가 높을 것이 예상되는 개인이나 단체도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사후에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재단이지만 여전히 부산시장이 이사장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 민간 재단 이사장을 재공모해서라도 민간 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성, 자율성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관에는 이사장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명권을 몽땅 가지게 돼, 실질적으로 재단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다. 심지어 대표이사에게 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 사업 계획을 세우면 일일이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융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재원 확충 뒷받침돼야**

부산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충이 급선무다. 재원 확충과 자율성·독립성은 나란히 달리는 수레바퀴와 같다. 시는 2009년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2018년까지 적립금 500억 원 마련'을 목표로 해마다 20억~40억 원씩 적립해 2018년까지 재단 적립금을 500억 원 확보하기로 했다. 문화재단 적립금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종자돈으로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재단 자체 사업을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 300억 원 남짓에 불과한 데다 올해 적립금 20억 원은 아직 확보조차 못한 상황이다.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립금 확보는 물론이고 전체 적립금 규모도 당초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적립금 이자로 재단 자체 사업을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립금 규모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문화재단 등은 적립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만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재단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메세나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4억~5억 원에 불과한 메세나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려 재단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재단 대표의 경우 메세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터이다. 이와 함께 기업 기부를 끌어올 방법도 여러모로 고민돼야 한다.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지역 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이름 아래 함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하다. 기업에 이름을 빌려줘 홍보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업의 주체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OO 기업과 함께하는 OO 사업' 'OO 사업, OO 기업과 함께 합니다'처럼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이나 대기업이 문화재단에 거부감 없이 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강화:**

**삶이 문화이고, 시민이 곧 예술가이다**

문화는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교육은 문화의 미래를 담보하는 지름길이다. 부산문화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미래 문화예술인을 만드는 토대이다. 어릴 적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를 접한 아이는 커서 훨씬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문화를 접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커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가 적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문화 융성 도시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미래를 보는 투자가 필요하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약하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매달려 있고, 시민을 위한 문화 정책 수립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역의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그칠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 직접 운영함으로써 더 좋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체득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모범적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교육청과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주말이면 초등학교가 폐쇄돼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주말이면 비어있는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터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문화가 주민의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행정 아카데미는 꼭 필요하다. 문화의 주체는 시민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갑의 성격이 강한 공무원의 문화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문화의 융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문화예술행정 아카데미'는 그런 의미에서 더 확대·운영하는 게 좋다. 연령별, 수준별(맞춤별), 장르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하고, 반드시 미술관, 박물관 관람과 같은 현장 체험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부산문화재단이 부산 영도구청과 맺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공동개발 및 사업추진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MOU) 형태는 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기초 예술 활성화 관심율:  
거리예술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경성대의 무용학과 폐과 움직임에서 보듯이 갈수록 기초 예술 분야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세계 유수의 도시를 방문하다 보면 그 도시가 내세우는 대표 공연이 있다. 인구 350만 명이면, 부산은 세계 30~40위권에 드는 큰 도시다. 하지만 외지인이 왔을 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대표 공연, 꼭 봐야 할 명품 공연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지만 선뜻 내놓을 게 없다는 게, 이게 부산의 현실이다.

지자체나 부산문화재단이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 최고의 야외 뮤지컬 '인상여강'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연이 펼쳐지는 중국 윈난 성의 리장은 연간 3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 부산문화재단은 좋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예술가가 맘껏 역량을 펼치게 도와줘야 한다. 부산문화재단의 깊은 고민은 그래서 필요하다. 거리예술 활성화도 기초 예술을 살리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재단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영국 런던의 대표적 관광지 코벤트 가든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코벤트 가든이나 람블라스 거리에서는 악사,

행위예술가, 익살스러운 재주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예술가들로 붐비는 코벤트 가든은 원래 300년 넘게 채소시장이었던 곳이다. 1970년대 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텅 비어버리자 런던 시는 예술가를 끌어들여 지역을 살리는 발상으로 예술가들에게 공연 라이선스를 줬던 게 대박 났다. 런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장소가 된 것이다. 이들 두 거리처럼 수많은 예술가가 나와 1년 내내 마술쇼, 저글링, 팬터마임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장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지자체와 부산문화재단의 할 일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궁극에는 기초 예술의 활성화, 문화 융성의 선순환도 이루어진다.

**마무리를 대신하며**

문화는 띄약벌 아래 나무 그늘과도 같다. 시민은 그 그늘이 가능한 자기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그들의 시원함을 알게 되면 가까이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고 한다. 재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문화 사업이 시민 가까이서 시원한 그들이 돼주지 못하고 산꼭대기 소나무처럼 오르기 어려운 곳에서 그늘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문화와 예술은 골목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삶에 깊게 들어가는,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와 예술이 되어야 한다. 그 역할의 한가운데 부산문화재단이 있다.

# '응시'의 기술을 깨우는 새로운 화면들

## 작가 감민경과의 인터뷰

글 | 김영준 · 독립 큐레이터, 전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인터뷰 | 감민경 · 작가

장 소 | 홍티아트센터

일 시 | 2017. 3. 16(목)



"사람들이 원하는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 제가 고집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때가 돼야 붓을 놓을 수 있어요!"

특별히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거나 사물에 초점을 애써 맞춰야 제대로 보이는 작품이 있다. 이렇게 감상자를 배려하지 않고, 작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감상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작품의 진가를 알 수 있거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우이다. 지금 감민경 작가의 작품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



'미완성 같은데, 완성 작품 맞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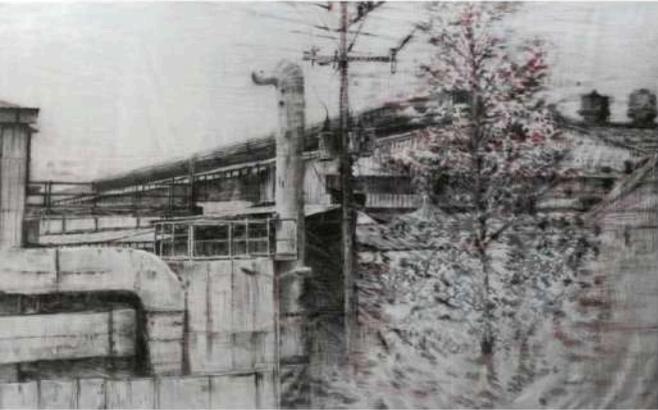
이미 중견이라 할 관록이 묻어나지만 그녀를 대면하면 언제나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하는 초년생 작가의 생기를 느낀다. 부산을 연고로 작업하는 감민경 작가의 이야기다. 그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화단에 뛰어든 작가다. 캔버스에 유화물감이라는 전형의 회화구(具)를 사용하고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유독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녀만의 화법이 있다. 그것이 관객을 불편하게 하거나 고개를 가웃거리게 하면서도 그녀만의 작품에 몰두하게 하는 요인이다.

감민경



김영준

그녀는 미술대학에서 전문적인 작가 수업을 받을 때부터 누구나 원하는 '완성된 회화'에 관심이 없었다. 스푸마토(stumato) 기법이라든가 대상과 배경의 위상을 대등하게 할 때와 같은 효과에 몰두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작품 속 그림의 사물과 그 윤곽은 흐릿해지고 그림전체는 희뿌연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되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그 대상을 찾기 위해 눈을 반쯤 감고 시점을 맞춰야 한다거나 초점과 가시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행위가 그녀의 작품을 미완성이라는 혐의로 몰고 가는 것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게 한다고 할 수 있다.



layred round, 230cmx500cm, colored pencil on cloth, 2016

**김영준** 선생은 남들이 볼 때 하찮은 대상을 그림니다. 천정에 붙어있는 형광등이나 어떤 창고실내 풍경이나 특별하지 않는 건물벽면 같은 것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작품대상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김민경** 제가 대학 졸업 후 처음 작업실을 얻은 동네가 서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었죠. 그렇다보니 남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터클한 풍경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나 대상을 그리게 되었어요. 사물도 마찬가지로요.

**김영준** 그런데 그 대상들이 화면에서 도드라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라서 마치 뿌연 연막 속에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데...

**김민경** 예. 저는 일반적인 구상회화의 완성단계 또한 요구된 관습이라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제가 원하는 시각효과에 몰두했죠. 남들이 완성된 사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할 때가 많지만, 제가 고집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저는 붓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태가 제 작품의 완성지점이라고 봐요.



layred round, 245cmx700cm, oil on linen, 2016

이 고집스러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잘 것 없는 대상 사물들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니 어쩌면 혹시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 해서 찾게 만드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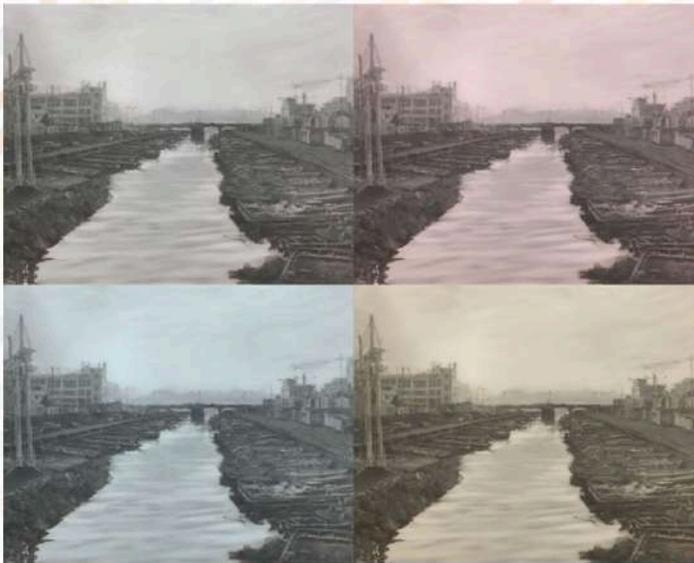
**김영준** 선생은 이런 작품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김민경** 저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펙트와 작품의 사실성과는 다르다고 믿었고, 그래서 제 작품의 사실성은 처음부터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펙트를 전제로 하는 것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과 효과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layred round", oil on linen, 2016



"layred round", 132cmx162cm (one), printing images(leh), 2016

**김영준** 그렇다면 선생의 작품을 감상할 때 마치 우리의 눈이 자동카메라 렌즈처럼 대상과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런 실험인가요?

**김민경**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상이 맺히는 지점이나 초점으로만 감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그림의 대상이 특별한 것이 아닌 만큼 초점을 맞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 자체, 그 상태로 보길 원하는 거죠.

작가 김민경의 작품은 구상화화면서도 오브젝트의 의미를 지운다. 그의 최근 거대한 걸개그림 'layred round'에서 그 특징은 잘 드러난다. 우리 지역 미술관에서 그림 보기 관습에 대한 이러한 환기는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특별함과 꾸준함이 그녀를 주목할 작가로 세워놓았다. 그녀는 2016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흥티아트센터의 입주 작가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창작 공간 베타니엔에 파견 입주 작가가 되었다.

**김영준** 선생이 흥티 아트센터에 입주 작가로 선정되어 작업을 해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김민경** 일단 같이 선정된 입주 작가들과 잘 지냈어요. 소통도 잘 되었고요. 특히 김해 클레이 아크 미술관에서 열린 교류전에 함께 했었는데 서로 많은 힘이 돼주기도 했으며, 또 서로 의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예문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거기서 약 두 달간 머무르면서 작업도 하고 전시도 했던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김영준** 독일 베타니엔 창작공간에 대해서, 또 가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김민경** 부산문화재단에 작가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되었어요. 베를린은 예술가들의 도시라고 할 만큼 예술가들이 많이 상주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베타니엔 창작공간이라는 곳은 원래 병원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세계도처에 있는 작가들이 매년 어플라이를 하고 1년에 25명 정도의 작가들이 선정되는 입주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준** 그렇다면 선생에게 독일 미술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보다는 독일이 꽤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김민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독일 표현주의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지금의 그림도 약간의 그런 성향이 있어요.

**김영준** 그렇다면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김민경** 포부...음...포부랄까, 계획이랄까 아무튼 저는 이 기회에 많이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흔들린다는 것은 많은 자극을 받고 좀 더 좌충우돌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데, 그 속에서도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계획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페인팅을 중심에 놓고 오브제를 전시장 공간으로 빼내는 설치작업을 병행하고 싶어요. 그림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드로잉도 많이 할거구요.

작가 김민경은 흥티아트센터 입주라는 기폭제로부터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마다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작가는 특히 2016년 11월에 필자가 기획한 부산시립미술관 응두산 미술전시관에서의 기획전 <응시의 기술>전으로 다시 작가와 기획자의 신분으로 재회하게 되었다. 다시금 밀착하여 관찰한 그녀의 작업은 십수년 전 작가 김민경의 것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져 있었다. 세태와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작품으로 환원시키는 능력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2013년 몇몇의 필진들과 활동했던 크래커라는 부산지역 미술비평지에서 필자가 다룬 김민경의 글을 상기해 본다. <중독과 감염의 미학>이었던게! 새삼 떠올려본 당시 그녀의 그림들 이미지가 지금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그녀의 고집은 한결같다. 많은 작가들이 즉발적이거나, 센세이셔널하거나 스펙터클한 순간 폭발력을 추구하는 현시대 세태에 매몰될 때, 자기만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가는 작가도 드물다. 우리에게 새로운 응시법을 가르쳐주는 김민경의 작품에서 지역 젊은 작가들의 모범 모델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독일 레지던시 파견을 축하하고 건투를 빈다. 그녀의 귀국 전시가 설레는 것은 너무 이른 기대일까?

# “우리는 진정 춤추고 싶습니다”

글 | 최찬열 · 춤 문화연구소 소장

인터뷰 김경옥(무용학과 동창회 회장 및 무용학과 폐과 반대 대책위 회장)  
김정원(대책위 위원), 김선주(무용학과 학회장), 서지우(무용학과 부학회장)

장 소 경성대 무용과 학회실



“우리는 진정 춤추고 싶습니다”

춤의 고장, 춤의 중심지 부산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 춤의 저력을 떠받치고 있던 대학 무용과가 줄줄이 없어지고 있다. 2012년 동아대 무용학과가 사라진 데 이어, 지난해엔 신라대 무용학과가 학부 내 무용전공으로 축소되었고, 이제 부산에 남은 무용학과는 부산대와 경성대뿐이다. 하지만 근래 경성대 무용학과마저도 폐과 결정이 난 상태다. 경성대가 무용학과를 비롯해 4개 학과에 대한 폐지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시작하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 지역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찬열** 무용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과 강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학생들의 손에는 “예술의 목적은 취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춤추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문구가 쓰인 피켓이 들려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경옥** 우선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유지되던 경제논리 위주의 교육정책, 문화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무조건 순응한 학교 측의 근시안적인 교육행정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여깁니다.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던 대학이 취업을 위한 전문학원으로 전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기초예술 전공 학과가 없어지고 있는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무용과 교수들의 책임도 상당한 것 같고요.

**김정원** 예술대학의 존재 가치를 취업률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무용학과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학과의 문을 닫는 것은 경제 논리에 굴복한 학교 측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 논리에 불과합니다.

**김선주** 저희는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의한 학교의 평가 잣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열** 그동안 학과 교수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한 것인데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김경옥** 무용학과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은 대학이 학과 운영을 제대로 못 한 탓입니다. 그리고 2,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며,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구시대적이고 폐쇄적인 교수들의 지도법 탓입니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일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무용학과 학생과 졸업생, 지역 무용계가 입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길게는 수년 전에 그리고 정확하게 1년 전에 벌어진 폐과 논란이 다시 반복된 것에 대해서 학과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 학교는 무용학과에 학과를 존속 시키기 어려우니 학과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했건만, 이에 교수들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기획안을 성실히 제출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끄럽게도 3년 전 교수들은 무용학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학교 측에 넘겼다고 합니다.

**최찬열** 어느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는 정부와 교육부, 학교 측의 상업적 시각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무용학과 교수들은 어떠한 견해를 내놓고 있나요?



**김정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춤의 고장'으로 명성을 막 날리기 시작한 1988년 여름 경성대 무용학과는 "뒷날 이렇게 오래 갈지, 이렇게 커지게 될지 우리도 몰랐던" 중요한 예술 행사를 개최한다. 개별 학교 무용학과 단독으로 <부산여름무용축제>를 연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춤 행사가 훗날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로 성장했다. 최은희, 남정호(현 한예종 무용과 교수)를 비롯해 당시 경성대 무용학과 교수들의 춤에 대한 열정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 학생과 교수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헌신한 덕에 훗날 국제행사로 자리났다.

**최찬열** 잘 아시다시피,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후반까지 부산 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된 동력은 대학 무용과에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경성대 무용과도 큰 몫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산 춤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정원** 저는 경성대 무용과에 입학하고 싶어 재수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경성대 무용과는 최고의 학과였습니다. 저희는 경성대 무용과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챙긴 것 같아 씁쓸합니다. 경성대 하면 무엇보다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20여 년을 이어온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는 몇 가지 대목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단일 무용학과가 개최하는 춤 페스티벌 가운데 이 행사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공연을 펼치는 야외 공연모형을 만들어 확산시켰으며, 예술의 힘으로 대학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2000년대 초(2003년 제16회)부터는 국제행사로 해외에서 활동하던 무용가들을 초청하는 등 학과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춤 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국제무용제(BIBDF)가 이 행사의 형식을 참조하는 등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지역 춤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행사는 경성대 무용학과가 주관하였지만 다른 대학 교수들도 참여, 무용 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 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도 학교로부터 받던 지원이 끊겼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서지우** 저희가 몰랐던 경성대 무용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게 되어 조금 놀랐습니다.

1980년대에 부산 춤의 르네상스가 밀어닥쳤다. 1979년 신라대(옛 부산여대)를 시작으로 8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부산 지역 대학에는 무용학과가 속속 개설되었다.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무용학과 졸업생들이 배출됐다. 의욕이 넘쳤던 무용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은 동인단체 창단 붐을 주도했다. 1985년 신라대 중심의 하야로비현대무용단과 경성대 중심의 춤패 배김새, 1986년 동아대 중심의 짓 무용단 등을 필두로 동인춤패가 생겨났고, 이들 단체는 부산 춤의 주력이었다. 참신한 작품들도 쏟아져 나왔다. 동인춤 단체가 부산 춤에 끼친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최찬열** 경성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인단체의 활동도 부산 춤 역사에서는 중요한데요. 이들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아울러 이들 단체를 이끌어왔던 주요 춤꾼들도 알려주시고요?



**김경욱** 먼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춤패 배김새와 현대 무용단 춤의 활동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새암 춤회와 그랑발레단의 활동이 있었지요.

**최찬열** 개별 학교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해 온 동인 춤 단체의 문제점과 이 사태를 연관지어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김정원** 교수들이 좌지우지했습니다. 동인단체 운영이 교수 1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서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는 정해진 틀 안에 가만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인단체가 교수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쓰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열** 최근 학교의 발표에 의하면 결국 무용과가 뮤지컬과로 바뀐 것 같은데요, 학교 측은 무슨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는가요? 뮤지컬은 무용과에서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장르가 아닌가요?

**김정원** 물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 교수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난 데는, 무용학과 교수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장르는 무용과에서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장르이고요, 이 외에 무용교육이나 사회무용이든, 커뮤니티 댄스든, 거리춤이든, 방송 댄스든, 실험춤의 강화이든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학과 개혁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학교 측에서는 대안 마련을 원치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 계속 다른 대안을 요구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최찬열** 연극과에서도 어느 정도 과 이기주의가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정원** 연극과에 섭섭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연극과에서 무조건 도와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의 도움을 끌어내지 못한 무용과 교수들의 안이함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춤은 부산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한 요소이다. '호남은 소리, 영남은 춤'이라는 옛말은 이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곧 예부터 부산은 춤의 중심지이며, 부산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춤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최찬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대책위의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싸움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아를테면 부산의 여러 문화, 예술 단체와 춤 관련 단체와의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무엇을 고리로 하여 이들과 연대하고 있는지요?



**김정원** 이 사태는 경성대 무용과만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부산 춤판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역의 여러 춤 단체, 문화예술 단체와 연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성대 무용학과가 없어진다면 이는 결국 지역 춤의 위기, 지역 문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학교 측이 전통이 깊고, 지역 춤계에서 상징성이 컸던 무용학과가 지역 문화 차원에서 갖는 의미까지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문화, 예술 단체와 연대해 지속해서 이를 알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지역의 정치권, 차기 정권에도 이를 계속 호소해 끝까지 무용과를 살려낼 각오로 싸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학과 교수들의 퇴진 운동도 할 것이고요.

**최찬열** 폐과 결정이 난 지금,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또 싸움의 동력이 많이 약화되진 않을까요?

**김선주** 힘은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폐과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폐과 반대 거리 공연을 지속해서 열 계획입니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찬열** 경성대 무용학과가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요?

**김정원** 내 모교, 내 춤의 뿌리를 꼭 지킬 것입니다. 부산에서 춤 예술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은 주로 경성대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산 춤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아왔던 경성대 무용학과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산 춤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꼭 지켜낼 것입니다.

**서지우** 저희는 춤이 좋아, 춤추고 싶어 무용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 춤출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본 책에 실린 내용은 각 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부산스런 인터뷰 Interview

국내 유일 지역 중심 대중음악 잡지를 만드는 사람

# 뷰직페이퍼 편집장 김혜린을 만나다.

글 | 방호정 · Street Writer, 영화배우, 작가, 다큐멘터리감독

인터뷰 | 김혜린 · 뷰직페이퍼 편집장

장 소 | 뷰직페이퍼 사무실



3월 초 모처럼 따듯했던 어느 오후, 장전동 지하철 역 앞에서 만난 김혜린 씨를 따라 가족과 함께 거주중인 아파트에 마련되어 있는 뷰직페이퍼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이 따로 없어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편하죠. 집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작년에 만든 부산 인디 옴니버스 앨범 박스와 책들, 뷰직페이퍼 로고가 찍힌 에코백, 스카프, 티셔츠 등이 가득 쌓인 창고를 겸하고 있는, 혼자 작업하기엔 딱 좋을 것 같은 자그만 작업실이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어색하게, 옆에 딱 붙어 말 그대로 밀착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굳이 작업공간을 보고 싶다고 강력하게 고집을 부린 내 탓이었다.



뷰직페이퍼 편집장 김혜린



**뷰직페이퍼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 2015년 6월에 1호가 나왔는데요. 훨씬 오래전부터 구상했죠. 2010년 버스킹 페스타라고 온천천에서 공연을 하는 행사에 참가할 팀들을 찾다보니, 공연 관련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선배들에게 수차례 의논을 했었어요. 다들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선뜻 나서는 분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 역시도 참 홍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음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성질 급한 제가 못 참아서 나서게 된 거죠.

**필진들을 보니까 현역 뮤지션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더군요.**

++ 부산 인디 씬 전체의 흐름을 인지하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 뮤지션들을 필진으로 섭외하게 되었죠. 현재 고정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뮤지션은 언체인드의 김광일, 스카웨이커스의 최정경. 지금은 소음발광이라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윤규택씨는 동네의 레코드가게를 소개하는 쪽지를 쓰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구요.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송구라 칼럼이라고 송교성씨가 부산의 문화정책이나 현황, 실태, 부산에서 돌아가는 흐름이나 방향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고정코너로 '백투더뮤직'이란 코너가 있는데요.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과거에 어떤 음악을 듣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팬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대중음악잡지, 특히 종이잡지는 참 희귀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역의 대중음악을 다루는**

**잡지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 네, 없습니다. 지역이 중심인 대중 음악잡지는 뷰직페이퍼가 유일하죠. 벌써 10권이 나왔는데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로컬 인디 씬에 관해 이젠 더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00호까지 만든다고 해도 내용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 만들 수 있지만 내용이 부족해서 없어질 경우는 없어요.

**잡지를 만들면서 부산 인디 씬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점들은 있나요?**

++ 지금껏 인터뷰 했던 뮤지션들은 사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들이지만, 주로 공연장에서나 술자리에서 만나 그저 잡담이나 나눴을 뿐이죠.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어린 시절이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생각들을 알게 되니 신기했어요. 그 전엔 그저 무대에서 보아온 모습이 전부일거라 생각했는데 과격한 음악을 하는 친구가 알고 보면 교회 합창단을 했었다거나, 의외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참 재밌었어요. 음악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추천하고 싶은 부산 인디 뮤지션은?**

++ 아...너무 많은데요. 우선 언체인드, 부산의 대표적인 밴드죠. 그리고 스키퀴이커스, 음악도 좋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최근엔 사이드카에 꽃혀있는데 음원이나 영상보다는 공연장에서 라이브를 직접 느껴보기를 추천합니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에너지가 참 멋있어요. 아, 김일두를 빼먹을 뻔 했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뮤지션으로도 좋지만, 사람으로서 존경할만한 사람이죠. 저는 정말 천재라고 믿어요. 싱어송라이터 김일두보다는 밴드 지니어스 멤버이자, 펑크 락커인 김일두가 조금 더 제 취향이에요. 펑크 밴드 스톤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민호 같은 경우엔 제가 부산 인디음악을 처음으로 접할 무렵 만났던 친구인데, 볼 때 마다 늘 만취상태였어요. 최근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취하지 않은 모습을 봤는데 술 안 먹으면 착한 양 같은 친구예요. 이번 10호에 인터뷰를 하게 된 사이드카의 이수호 얘기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부산펑크의 천국을 보여준다면 스톤드는 지옥을 보여주는 밴드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러면 부산 인디 씬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 부산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공연을 만들 때, 사전 홍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홍보영상을 만들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공연 2, 3일 전이나 하루 전, 공연 당일 날부터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따로 직장생활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홍보를 기대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관객들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밴드도 관객도 흥이 나고, 씬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건데... 가끔은 자기들끼리 몰래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관객들 역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으면 해요. 흥대 앞 라이브 클럽들 부러워하지만, 부산에서도 주말 마다 여기저기서 공연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력으로 따지면 흥대 앞의 뮤지션들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아요. 서로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죠. 밴드와 관객을 이어주고자 하는 맘에서 잡지를 만들긴 했지만 그러기엔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부산 뮤지션들의 음악에 어떤 지역색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분명 있죠. 씬이 작은 만큼 더 끈끈하고 가족 같은 느낌도 있고요. 스톤드 노래만 봐도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같은 가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부산 뮤지션들의 노래 가사엔 '바다'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부산 인디음악의 특색이라고 하긴 너무 억지일까요?

**잡지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 역시 돈이죠. 돈입니다. 어쨌든 무가지이고, 광고도 없고, 기본적으로 인쇄비 등등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유가지로 전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부산 음악씬을 조금이라도 더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잡지를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잡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시더군요.**

++ 작년 9월에 뷰직라이브라는 공연을 했어요. 종이잡지로는 음악을 소개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생각에 공연을 기획했죠. 공연만 하기엔 좀 아쉽더라고요. 활동하는 팀들을 소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 좀 무리를 했죠. 하루에 9팀이 올라갔어요. 참여한 팀들의 음원을 제공 받아서 옴니버스 앨범을 만들었어요. 2000장을 찍어서 전국의 모든 지역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사에 다 뿌렸어요. 뷰직페이퍼와 관련된 일들은 힘들진 않고 재밌어요. 그 외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힘들어요. 어찌겠어요. 계속 만들려면 해야죠.

**90년대부터 부산 인디 씬에선 자조적으로 부산은 문화적 불모지다. 변방이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왔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 제가 호주에 놀러갔을 때, 호주 사람들은 지도를 우리가 보는 것과 반대로 남반구를 북쪽으로 올려서 그리더군요. 서울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변방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모지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많고 적음 역시 인구 비례해서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오히려 서울에 비해 강점도 있어요. 서울은 위쪽으로 막혀있지만 부산은 해양성이 있으니 일본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얼마든 진출할 수도 있으니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 역시 부산이 불모지 같은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심수변에 도시문화 레스토랑으로 레시피를 채우다

글, 사진 | 홍순연 · (사)삼진이음 이사, 동서대, 동아대 출강 중



누구나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틀리다. 나처럼 도시가 어떻게 만들 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현재 모습과 비교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구석구석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즐거움을 찾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나의 생활과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때, 다름을 느낄 때 도시의 즐거움을 찾을 때도 있다.

최근 들어 도시계획 작업할 때 사람들은 그럴싸한 물리적 그림에 현혹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용을 우선시 하며 물리적인 일을 하는 나에게 콘텐츠, 프로그램 맞는 계획을 요구한다. 고객들은 이제 획기적인 변화보다 허름하지만 누구나 아는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는 크게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과거 도시계획에서 새로운 신흥도시의 구획된 모습을 쾌적이라는 이름으로 선호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도시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에 따라 도시의 상상은 시각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이고 내용적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건축을 하는 이들도 부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물론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도 있겠지만 장소에 따라 재생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장소를 보는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나 또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명일 것이다. 몇 년 전 부산을 찾은 호주 교수님이 산복도로에서 바라본 원도심을 보면서 "여기는 용두산이고, 저기는 1부두네요" 라고 이야기하셨다. 궁금한 나머지 부산에 오신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910년대에 쓰인 호주 선교사의 일기에 부산의 이미지를 보고 대중 장소를 알겠노라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부산은 약 100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이미지와 그리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그만큼 도시의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은 근대적 흔적이 공존하는 도시이고 그 흔적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근대의 근집성이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영도 봉래동 일대일 것이다. 봉래동 일대는 1910년 영도 최초의 시가지 계획이 진행된 장소로서, 100년 전의 도시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채 보존된 장소이다. 당시 부산의 기반산업인 조선소 및 도기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조공업이 크게 활성화된 장소였으며, 그 산업 일꾼들의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 장소가 지금의 봉래시장(당시에는 목도공설시장으로 칭함)이다. 봉래시장은 부산의 3대 공설시장으로 큰 규모의 근대식 시장으로 발돋움하여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항만지역에 위치한 빨간 벽돌로 구성되어있는 보세창고군은 현재도 원형을 보존한 채 수리산업의 메카로 그 장소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봉래동 자산인 100년 된 도시구조, 50년간 지역상업을 유지하고 있는 노포들, 항만의 이면공간의 상업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장소이다.



최근 들어 한진조선의 이전과 맞물려 이곳은 핫한 공간으로 변했다. 이곳은 낙후된 지역인 영도에 개발계획이 무수히 나오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땅값도 수직상승 중이다. 또한 앞서 말한 근대적 장소에 미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한 매력적인 장소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북향을 마주하고 띠형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은 부산의 내향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으며, 가장 근접하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친수공간이기도 하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수리산업과 기술자들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들을 입고 분주히 오고가고 있는 삶의 장소이기도 하며, 여전히 항만지역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배들이 빼곡하게 정박되어 도심에서 볼 수 없는 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영도 관문지역인 봉래동 일대는 도심향만을 끼고 넓게 펼쳐 부산의 도심지에서 가장 큰 평원

같이 펼쳐진 수평적 공간이다. 또한 1930년대 조성된 도시의 틀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형성된 곳이므로 그 의미는 더 클 것이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한다. 제2의 센텀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마지막 남은 신도시라고, 또 어떤 이는 마지막 남은 원도심의 공원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당장 보여지는 센텀이 과연 잘 조성된 미래의 도시일까? 라는 의문도 생긴다. 물론 개발도 이루어지고 고층건축물이 들어서야겠지만 일부 공간에 문화자유지구를 형성하여 개발 공간 안에 비워진 공원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 개발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

개인적으로 "도시문화 레스토랑"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레스토랑은 본래 요리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장소라는 뜻으로, 18세기 후반 파리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뜻과 유사하게 요리가 아닌 문화 레시피를 이용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장소로 탈바꿈했으면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행위의 공간이 된다.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경계가 없이 일부 간단한 조립형

태의 오브제들을 만들어 노천연극공연장을 만들고, 갤러리, 도시문화 레시피 아카데미로 옛 광장이 가진 기능을 다시 재현하여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부산에 유일한 뾰족한 지붕이 해안선을 따라 나지막하게 서있는 오래된 물류 창고군들과 물량장이 그 역할을 했으면 한다. 다른 곳들이 개발이라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이 지역만은 보존이라는 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아직 남은 근대식 목조 트러스와 붉은 벽돌과 시멘트벽돌이 그대로 노출되어 바닷바람과 함께 유쾌적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차를 타고 이 공간으로 진입하기 보다는 영도다리, 부산대교 등 다리를 타고 자연스럽게 보행권이 형성되어 준비한 주차장에 둘러친 삭막한 공간이 아닌, 걸어 다니며 여유롭게 이 문화 레스토랑들을 즐겼으면 한다. 건너편 롯데백화점에 화려한 불빛과 다른 조국은 거친 불빛에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물의 불빛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했으면 한다. 그 내부 나무트러스에 조그만 전구들이 준비하게 끼워진 채로 멋들어진 펍(Pub), 숍(Shop) 등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바다를 바라보는 노천카페에 앉아 한여름의 추억도 함께 만들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문화 레스토랑에 담고 싶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진 잔교들이 바다에 근접하여 놓이면 그 곳을 걸어 다니면서 부산의 내향을 바라보거나, 가족들이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해안선

잔교는 띠형으로 흘렀으면 좋겠다. 그 띠로 형성된 길들을 끊임없이 걷다 보면 어느덧 돌아 다시 이곳 봉래동으로 회귀된다. 멀리서 보이는 영도다리가 보일 때쯤, 해안선 안쪽으로 안아 들어 온 물량장 한편에 아이들이 옷을 흘려던 벗고 뛰어 들 수 있는 플로팅 수영장을 만들어져, 도심 한가운데 바다를 관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뛰어드는 공간이 물 위에 있었으면 한다.

도시문화 레스토랑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몇몇의 거점시설은 존재하나, 익숙하게 보여줬으며 한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내려있고 우뚝 솟아 올라있는 빌딩타입의 건축물이 아닌, 수평선으로 넓게 펼쳐진 해안선을 거스르지 않는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마치 광장처럼 보였으면 한다.

삭막한 도시에서 비워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워놓음으로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크지 않지만 이러한 공간이 개발의 틀 안에서 회자된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급하게 무언가를 계획하기 보다는 여유 있는 기다림으로 이곳을 고민하여 더 좋은 공간과 더 좋은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유를 즐겼으면 한다.





# 예술, 교육으로 말하기

글, 사진 | 이미연 · 연극놀이연구소 As if 소장,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극 전문가

✚ 덴마크 북부 호보라는 작은 항구도시에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학교가 있다. 2008년에 설립된 '유스터스코브 애프터스쿨'에서는 모든 교육이 역할놀이를 활용한 롤플레이 게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에는 크게 공립 학교와 정규 사립학교, 독립학교라고 지칭되는 다양한 대안학교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중 애프터스쿨은 저마다 독특한 교육철학으로 만들어진 1~2년 코스의 기숙형 학교로 보통 9~10학년(우리나라 중3에서 고1)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전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해 진지한 탐색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유스터스코브 애프터스쿨'을 설립한 두 사람은 게임 디자이너인 매드 루나와 역할놀이 Role Playing 전문가인 말리크 힐토프이다. 그래서 모든 교과를 역할놀이 게임으로 배우는 독특한 교육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설립자이자 교장인 루나는 대학시절 롤플레이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어 나가는 것을 보고 학교 교육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실제 이 학교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빠져 있다. 학교는 이런 아이들이 오프라인 게임 속에서 실제 참여해 배움을 얻도록 수업을 구조화했다. 덴마크의 중세역사를 배우는 역사통합수업에서 아이들은 중세의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받은 영토의 지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특산물을 이용해 경제 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사회 역사 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적 지



식도 미션을 해결하면서 원리를 터득해나간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 배움과 놀이가 통합된 세계 속에서 삶을 연습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EBS 교육방송 <세계의 교육현장>에서 2010년 4월에 방송된 이 학교를 나는 며칠 전에야 영상으로 만났다. 만약 7년 전 방송을 봤다면 이런 학교와 배움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한탄하고 먼 곳에 떨어진 덴마크의 교사들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 시절 나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기계공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즈음 아이들의 일상은 빼곡하게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느라 언제나 고단했고 동아리 활동이나 좋아하는 운동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쫓기고 있었다. '새로운 수업이 필요하다. 잡의 세상으로 달아나려는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 문헌텍스트 안에서 놀게 할 수 있는 수업, 함께 토의하고 떠들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수업, 내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실천해왔던 드라마(연극놀이) 수업이 그 답이 될 수 있을까?'

++ 나는 드라마가 가지는 힘을 믿어보기로 했다. 드라마 Drama는 참여자들이 교사의 안내에 의해 스스로 체험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과정 중심적 연극 활동을 의미하는데 특히 연극이 가지는 예술성을 체험함으로써 상상력, 창의력이 풍부해지고 함께 활동하다 보니 당연히 협동심이나 사회성도 발달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되어 영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의 핵심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헌텍스트를 주입식 방법으로 학습하지 않고, 다양한 연극관습을 이용하여 문학 속 세상을 가상적 현실 안에서 실제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을 이끄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매 수업 아이들과 나누는 연극과 문학의 향연으로 교실에는 늘 웃음이 넘치고 심지어 가족의 문제를 탐구하는 시간, 불행한 가족을 연출하면서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불행을 연습했다. 드라마 수업을 하면서 나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 속 세상



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창의적 예술가로서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연극을 통해 인간과 삶의 진정성을 탐색하는 모험가로 살 수 있었다. 아이들과의 연극 수업은 나에게 배움과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다.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고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며 마음과 영혼에 와 닿는 전인적인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이들과 전적으로 교감하는 수업에서 오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에게 오직 트랙을 달리기를 요구하는 학교를 넘어 바깥세상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연극, 교육으로 말하기를 실천하면서 비로소 예술가로서의 교육가는 어떠한지 알게 된 것이다.

++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온 지 6년째, 연극놀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예술교육가, 드라마 리더, 문화기획자로 살아가면서도 나의 눈과 마음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예술적 감성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학교는 밖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되면서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이 수년째 실행되고 있고 시·도 단위, 구 단위 문화재단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공교육과의 연계나 협조는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다. 사업 실행단체들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참여자를 모으고 협력단체나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며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역시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행으로 다양한 영역의 예술교육가들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적인 추천이나 이력서를 받아서 형식적인 인터뷰를 하고 강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학교와

예술가가 만나는 주요 통로였던 예술강사 사업은 수많은 비용을 치르고도 일자리 창출 이상의 기대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예술가들은 어떤 교육가가 되어야 하는가, 예술가 개인, 단체들은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 안 혹은 바깥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학교와 예술가, 예술교육단체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90년대 후반부터 십수년 동안 영국에서 시도된 학교개혁프로젝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사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sup>1)</sup>

1) 2012년 1월 2일 방영 EBS 세계의 교육현장 <서울G20정상회의특집 학교에 간 예술가들 영국의크리에이티브파트너십>편 참조.



CP는 학교와 크리에이티브 프랙티셔너(Creative Practitioner(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전문예술가),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Creative Agent(학교와 예술가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로 구성된 학교를 예술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한 창의교육시스템이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의적 작업과 교육 방법을 홍보하고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맞는 예술가를 찾기 위해 일 년에 한번 열리는 마켓에 참여한다. 학교로 간 예술가들은 다수의 교사들과 협력해서 아이들을 다양한 예술적 방법으로 교육한다. 교사들은 창의적 영감을 가진 예술가들을 만나 딱딱하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술가들은 교육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서 개인의 창의적 예술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예술, 교육으로 말하기'가 생산적 시스템으로 체계화된 정책이다.

✚ "21세기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잘못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정신, 팀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사물간의 연관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은 정말 중요하다" 라고 폴 콜라드(영국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대표)는 강조한다. 이것이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을 살아야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함께 모여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능력,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능력, 인류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힘이야말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예술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 자신을 비롯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예술교육가들에게 이 물음을 던진다.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예술가이자 교육가로 살고 있는가, 우리 단체는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의 확장을 돕고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가'*

# 문화

## 돌보기

### I

52

# 문화예술분야 창업, 문화다원주의로 차재근

58

# 예술가들의 창업, 창작에 관한 조명 김정주

### II

62

# 없는 길 찾아 떠나는 예술가의 여정에 짚신을 삼다 황해순



# 문화예술분야 창업, 문화다원주의로

글 | 차재근 · 서울시청년허브센터장

바야흐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같은 지식 집약적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의 시대로 들어섰다. 중앙정부는 물론, 대선정국의 대부분 대선후보들이 4차 산업 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4차, 5차 산업의 특성상 강력한 노동력 투입을 통한 산업구조 형태가 아닌, 이른바 골뚝 없는 공장 혹은 일인 창조기업 형태의 일자리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정책 혹은 대선공약이건 간에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도외시한 허무맹랑한 장밋빛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 4차 산업 영역은 사실 공공영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또 산업 특성상 민간 혹은 기업이 만들어낼 일자리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영역확대가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4차 산업과 5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확장성을 가진 산업 영역이다. 「공감 그리고」 24호의 기획 주제인 '문화예술 분야 창업실태'는 그간 본격적인 연구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다소 난해한 주제로 인식된다. 그것은 유독시리 문화예술 분야가 공공지원과 정책, 제도를 통한 먹거리 확보에 치중한 반면,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일반적 산업 시스템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자본과 투자 등 기본적인 기업구조를 가지지 않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법인격과 경영형태를 가진 산업 영역인 것에 기인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선행 연구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필자는 문화예술 분야의 업체(기업형태)와 업종(대상콘텐츠)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업체와 업종 유형이 가진 창업사례 중 주목해야 할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 업체(기업형태/법인격)

고전적 유형이다. 예술단체와 예술가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최소한의 법인격을 확보한 경우와 아무런 법인격 없이 임의적 창업을 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실상이다.

고전적 유형에서 조금 더 기업형태로 발전한 것이 전문예술단체(법인)이다. 수월성을 가진 직업예술단체 혹은 법인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전문예술단체(법인)로 지정하여 세제혜택과 기부금품 모집 권한 등을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정보제공 등의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성장시켜 주는 형태의 유형이다. 2007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로 2015년까지 전국에 824개(단체521, 법인303), 그중 부산에는 72개(단체44, 법인28)개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다양한 간접지원 방식이 눈에 띄지만, 직접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영역의 유형이다. 사회적 기업군에 속한 형태와 협동조합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군에 속한 형태는 인건비 지원 같은 직접지원에 의존하지만 운영 지속성과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조합 형태의 창업은 공공지원을 전제하지 않는 자생력과 독립성,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요즘 문화예술분야 기업 유형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창업형태이다.

문화산업적 유형이다. 서양음악, 뮤지컬, 게임, 영상 미디어 등의 특정 영역에서 수월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유형으로 영리적 기업형태에 가깝다. 개인사업자,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혹은 공익법인 등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다. 경영역량과 콘텐츠의 가치로 수익성을 창출하고, 그 이윤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확장한다.

일인창조기업 유형이다. 고전적 유형과는 달리, 문화트렌드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자신이 가진 예술적 역량 자체 혹은 변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하나의 전문 업종이 아닌 여러 개의 전략 업종을 가진 다원적 일인기업가 자질을 보인다. 일인 창업의 의미보다는 다원화된 창작 주체로서 한사람의 가치에 주목한다. 자신이 가진 예술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업종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협업과 통섭으로 일인기업의 단점을 극복하기도 한다. 협동조합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유형이다.



광주 주스컴퍼니 활동  
(사진제공) 주스컴퍼니



연희단거리패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업종(콘텐츠/생산품목)**

전기와 같이 업태 유형과 적확히 일치하는 시기적 구분을 부기하지 못한 점은 업종구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타깝지만 원고지 20매의 분량 기술에서 다를 일은 아니므로, 시기적 구분에 대한 서술은 생략한다. 다만, 업종 유형별로 주목해볼 만한 창업 모델이나 기업에 대한 내용은 보충하기로 한다.

창작콘텐츠의 생산, 배급, 유통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예술기업이다. 주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발견되는 업종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구성원이 존재하는 공동체 예술장에서 유효하며, 창업초기에는 주로 공공지원 사업과 공공재원, 기업후원과 기부금에 의지하여 성장하여 점차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 점이 눈에 띈다. 순수예술분야로 국한한다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교향악단/재단법인/전문예술법인), 서울모테트합창단(합창단/주식회사/전문예술법인)등의 서양음악 단체, 김덕수로 대표되

는 사물놀이한울림(사물놀이/사단법인/전문예술법인), 공명(타악,월드뮤직/고유번호/전문예술단체), 남산놀이마당(국악/사단법인/전문예술법인/부산)등의 전통연희 단체, 연희단거리패(연극/고유번호/전문예술단체/부산태동), 학전(연극/고유번호/전문예술단체)등의 연극단체, 서울발레시어터(무용/고유번호/전문예술단체), 유니버설발레단(무용/재단법인/전문예술법인)같은 무용단체 등을 안정기에서 기업으로 손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업종 다변화 현상이 기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변화하는 문화트렌드 소비변화에 대응해가는 방식에 대한 탐구는 매우 유익할 것 같다. 다른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전문예술단체(법인)제도가 가진 간접지원을 매우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삶, 공동체, 지역, 국가의 문화역량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분야이다. 특정한 예술 장르의 기능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예술을 통한 교육,



남산놀이마당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름 아닌 민주주의라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주목하는 영역이다. 2006년 즈음 참여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궤도에 들어서며 관련 인적 네트워크와 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중 창업형태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는 부산문화예술교육협의회(교육,기획,문화재생/고유번호)와 공공문화개발센터 유알아트(문화기획/고유번호/전문예술단체) 정도이고 최근 연극교육을 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더베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인 창업 혹은 창직 영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되지만, 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지속성이 담보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화예술기획, 컨설팅, 정책연구, 평가 수행 등이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융역 수행기업의 등장이다.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평가의 전문성 확보로부터 시작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 전 분야의 필요성에 의해 확장된 이 분야의 창업과 안정적 기반확보는 다른 어떤 문화예술분야의 그것보다 우월하게 앞서 있는데, 그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진 예술경영, 사회인문성, 지표 수치와 평가역량 등의 다양한 전문성이 해당 단체(기업) 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화다움(기획,컨설팅,연구/사단법인), 메타컨설팅기획컨설팅(공연장,문화도시/주식회사)가 대표적이며, 시월(문화기획,행사,조사,축제/주식회사)과 일상예술창작센터(핸드메이드,프리마켓/임의단체), 기분좋은 QX(평가,컨설팅,기획/주식회사)등이 뒤를 이어 꾸준히 활동하여 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주로 수도권에 적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해 왔던 전기 사례와는 달리, 지역에 적을 두고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업단체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부산의 플랜비(기획,컨설팅,문화재생/협동조합)와 광주의 쥘스컴퍼니(기획,행사,축제,코디네이팅/주식회사), 춘천 바라기획컨설팅(기획,컨설팅,지역문화/고유번호)의 성장세는 눈여겨 볼만한 의미 있는 현상이다.

입주공간	단체명	주요활동
청년허브 미담이사무실	7pictures	예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게임학습공방 비따비	오프라인 게임 학습 콘텐츠를 개발
	비어스 웨딩	작은결혼식 서비스 제공
청년청	판타문 필름	영상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Just Project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혁신파크	달려라피아노	페피아노 업사이클링, 피아노 기증 및 공유사업
	에이컴퍼니	미나리하우스 운영, 브리즈 아트페어, 전시기획 운영 등
	티팟	시민이 공공공간 참여
	금자동이	장난감을 활용한 체험학습 및 교육콘텐츠 개발
	슬로리프로젝트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플리마켓 진행
	자락당	공동체형 중고문화 마켓 운영
	비컨타이거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의류제작
페어스페이스	유휴공간 발굴 및 유휴공간을 활용	

[도표1] 서울시청년허브, 혁신파크 내 "문화·예술·재생+비즈니스 창업모델" 단체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화트렌드 변화가 수반하는 다양한 창업 영역의 등장이다. 공공미술을 시작으로 문화적 도시 재생, 창조가 된 매니아, 업사이클링아트, 4차 산업기의 요구 등이 새로운 문화예술분야 창업의 기회를 만들고 창작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문화적 지역재생의 중심에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 사업 현장에도 어김없이 눈에 띈다. 생활문화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주민밀착형 문화시설 곳곳에서 이들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다만 창업이나 창작의 형태로 진화한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개척의 지평 또한 넓다는 반증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가치예술협동조합(업사이클링아트, 공공예술, 협업/협동조합)과 광주 전라도지오그래픽(문화재생, 지역여행/사단법인)의 창업사례와 지속성 확보는 서울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면한 청년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 일자리, 정책연구, 지원, 수당 등을 담당할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그 중심에 공간을 두고 있고, 공간을 움직이게 하는 작동원리에 문화를 적용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관련 청년 창업과 창작이 늘어났다. 지면상, 서울시 청년허브 미담이 사무실과 청년청, 혁신파크내 입주 공간 중에 문화, 예술, 재생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형태의 창업사례를 도표1과 같이 요약 소개 한다.

**마치며**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 예술분야에 국한한 창업은 시작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수익을 담보로 한 신장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가진 단체(기업)들 대부분은 문화다양성과 영역확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라는 광의의 문화 개념을 그들의 창업과 기업의 경영전략에 반영한 결과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치예술협동조합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창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칙을 몇 가지 권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왜냐하면 원칙을 탐구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과 먹거리는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화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 원칙,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다원주의 원칙, 시민사회 참여, 연대와 협력 보장의 원칙, 상호 보완성과 균형의 원칙,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 희소보전 긴급우선의 원칙, 이렇게 여섯 가지 원칙을 자신의 활동영역에 작동시켜 가다보면 창업을 위한 업태와 업종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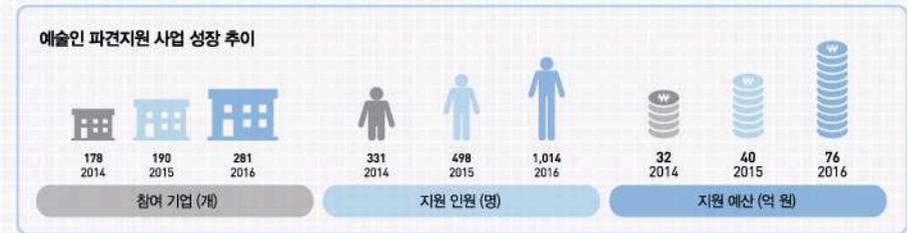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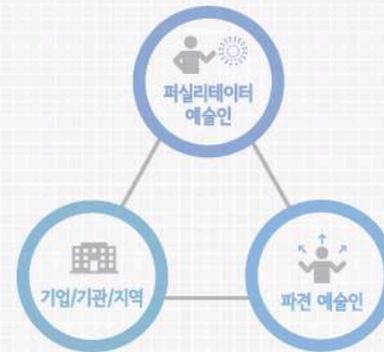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 예술가들의 창업, 창직에 관한 조명

글 | 김정주 · Gachi예술협동조합 대표

요즘 창업, 창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며 예술 활동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순수예술만으로 살아가기가 참 녹록지 않다. 예술가로의 직업, 예술을 전업(full-time job)으로 삼기에는 아직 우리 사회의 구조가 미비하다. 작품을 팔거나, 공연을 하거나, 집필, 원고료, 인세, 또는 예술교육으로 강의를 받거나, 2015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이 예술 활동으로 얻는 연 수입은 평균 1,255만 원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예술 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도 36.1%나 된다. 4인 가구 기준 2016년도 최저생계비는 약 176만 원, 예술가가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직업이 예술가인데 그 본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업을 가져야 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어떤 이는 학교,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어떤 이는 전공 예술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생계와 하고 싶은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음식점 혹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 막노동을 하는 이도 내 주변에는 있다. 이마저도 불규칙적이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업이 본업인 예술 활동과 병행하기 어렵다. 생계를 위해 부업에 쫓기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부업이 본업이 되어 예술계를 떠나는 이도 적지 않다. 예술 관련 일자리도 부족하데 드물게 공익적인 일을 하려 들면 열정페이, 재능기부 등으로 예술가들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예술인이 기존 예술 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시간을 쓰면서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없을까. 부업을 하더라도 전공 예술 관련의 일을 한다면 좋을 텐데…….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창의적인 시각을 통해 기업, 기관, 지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 예술적 직업 역량을 개발, 실현하여 예술인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을 만들고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한다. 예술인을 매칭하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331명, 2015년 498명의 예술인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1,000여 명을 지원했다. 파실리테이터 예술인과 파견예술인은 활용하길 바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가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진화된 일자리 지원이지만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아쉽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예술가의 일자리는 결국 창업, 창직으로 풀어야 하겠다.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 관련 일들을 만들어 하고 싶은 예술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럼 예술가들은 창업, 창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우선 용어정리를 해보면 직업(職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소득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발휘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 또한 개인은 경제활동에서의 사회적 역할분담을 통해 가치창조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 이렇듯 직업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아울러 사회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선택 역시 중요한 사안이 된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사회적 역할을 하며 행복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소득의 원천,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즉 생존의 방법이다. 창업(創業)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직(創職-job creation)은 고용 없는 저성장 경제 구조와 포화된 일자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바, 개인 스스로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창의적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를 개발하고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즉, 자기 주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직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예술가의 창업, 창직**

고용노동부는 창직의 의미를 創職 (비슷할 창, 직분 직)으로 창직과 창업은 다르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을 처음 만들어 시작하거나 만족한 일자리를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려는 21세기 트렌드, 또는 창업과 구직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정책개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게 진화되어 예전의 인기 직종은 빛이 바래는가 하면 과거엔 생각지도 못한 직종들이 생겨 인기를 얻기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는 2010년에는 7,980개, 2012년에는 9,298개, 2014년에는 11,440개로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직종이 늘어나지만 미국의 30,654개, 일본의 25,000개에 비해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세분화된 직종들이 생겨나야한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제46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제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결국 약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현장직 및 기능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무직 및 관리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현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애널리스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3월 진행된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현실성을 대중에게 인지시켜주었다. 체스에 이어 바둑에서마저 인공지능<sup>AI</sup>이 프로 바둑기사를 꺾으면서 기계가 인간을 대처할 수도 있다는 현실은 공포로 다가왔다. 과연 인간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예술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일을 찾아야 할까? 기계는 할 수 없는 감성적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을 접목한 블루오션의 창직을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의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공모 프로젝트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예술종합학교 주관의 통합 예술(창작) 지원프로그램인 "에컨대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컨설턴트-대학'의 줄임말로 기존 창작지원사업과는 달리 활동 경험이 부족한 예술전공 졸업(예정)자들이 예술가로서 삶을 원활하게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예술가 창업(창작)모델을 개발하여 청년 예술 창업 팀의 스타트업 재정지원과 관련 전문가의 집중 멘토링을 제공 지속적인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청년예술가상으로 성장을 돕고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프로젝트이다.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 4기를 모집하고 있으니 예술가 창업 및 창직을 준비하는 청년 예술가들은 도전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창업, 창직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의 문제가 있다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술가의 직업**

영국의 유명 철학자 앨런 왓츠가 직무, 적성,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의 동영상 내용 중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한 짧은 삶이 불행으로 가득한 긴 삶보다 좋지 않나요?" 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던 그 일을 함께 한다면 향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며 같은 관심분야를 가진 사람들에게 훌륭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매년 잊고 있는 나에게 재정비의 시간을 제공한다……. (You Tube 동영상 참조) 동물과 인간의 구분되는 특징은 생존과 생존을 넘어서 추구하는 가치이다. 직업은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된다. 그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직업이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여 가치실현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고 지속성을 가지는 일이 진정한 예술가의 직업이겠다.

예술가의 창업, 창직에서 1인 기업 혹은 근로자채용으로 사업을 진행 하게 될 텐데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대응', '예술기업가 정신', '예술과 콜라보레이션', '사회적 가치와 이윤창출' '세대 간의 소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며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모인 자본 결합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인적 결합이라는 점이다. 개인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사업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예술분야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관심 있는 주제를 역할에 따른 재능을 분담하여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시스템을 만들어 수익구조를 갖는 협동조합은 어떨까 싶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1 멘토링 서비스, 역량강화워크숍, 원포인트 컨설팅, 마켓&포럼,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예술관련 창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가 될 만한 도서를 소개한다.

-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박원순 저. 문학동네)
- 창직이 미래다! (이정원 저. 헤드림출판사)
- 메이커의 시대 (박영숙 저. 한국경제신문)
- 프리에이전트의 시대 (다니엘 핑크 저. 에코리브르)
- 1인 기업을 시작하라 (브루스저드슨 저. 북폴리오)



# "없는 길 찾아 떠나는 예술가의 여정에 쫓신을 삼다"

예술인들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구현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글 | 황해순 ·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 I.

### 예술인복지 왜 필요한가?

예술인복지법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고위험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그 발단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예술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와 국가적인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시행되기에 이른다. 또한 예술인의 직업안정, 사회보장 확대, 예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된다. 바야흐로 예술인 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역 예술계의 실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 2.

### 수도권 중심의 예술인복지정책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함께 지역 문화분권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강화되는 현 시점, 지역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현재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4분의 3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이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도 대부분 수도권 거주 예술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수도권 예술인,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은 복지 관련 정보나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지역 예술인의 소외가 예술인 복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진짜 문제는 예술활동 기회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다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이나 수입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활동증명의 수도권 편중은 예술인의 활동 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는 예술인이 일할 수 있는 장(場), 즉 문화기반시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제1조에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문에서는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 소외 문제의 핵심에는 지역 예술인이 있다고 본다. 지역 예술인 정책이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닌, 더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다양한 집단의 노력과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자생력을

# 예술이 커다란 "기쁨을 싣고 이 땅에"

가지고 성장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예술인의 유입이 계속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식(2017. 2.)

## 3.

### 부산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증진정책

부산 문화의 특징은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 실험성으로 요약된다. 이런 특징은 예술인들의 기질로 투영되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열의와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2013년 10월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 보고서(2015. 9)〉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문제는 지역 예술인 생활 실태와 창작 여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여건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부산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부산형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 보고서(2015. 9))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전국 최초의 의미보다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예총, 민예총, 예술인이 함께 정책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부산문화재단은 올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개소와 함께 부산발(發) '예술인 복지'의 본격적인 행해를 시작한다. 전국 최초로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화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홍보와 매개 역할을 수행하여 중앙과 지역 간 예술인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시비 예산 4억 원을 확보하고, 예술활동증명 대행 업무 외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예술인 복지 코디네

이터 운영,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반딧불이(빈집 활용) 사업, 휴-안심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올해 특히 주력하는 사업은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와 '예술인 일자리 파견사업'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의 재능이 필요한 기업과 안정된 일이 필요한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장을 마련한다. 예술인 복지의 기본은 안정된 창작기반과 함께 그들의 창의력을 안정된 직장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창작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예술역량을 바탕으로 한 부업(sub-job)의 창출 가능성을 도모하여 시작된 사업이지만, 해가 갈수록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장이라는 측면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기업(기관)뿐 아니라 비영리기관, 지역 등 예술인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사회 곳곳에 파견하여 예술적 가치를 확장하고, 스키게 하는 본격적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서도 문화예술과 경영을 접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부산, 울산, 경남 기업을 참여시켜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예술인 일자리 파견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의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심리 안정과 법률 분야의 상담도 제

### 2016년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 ▶ 반딧불이(빈집활용) 창작공간 사업
-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 ▶ 휴-안심 프로그램
- ▶ 예술인 법률자문 및 신문고 운영
- ▶ 예술인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부산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총 누적등록자 12,059명(2015년 658명, 2016년 1,401명) 2016. 12월 기준

문의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36, 7238

공할 예정이다. '반딧불이 창작공간 사업'은 빈집이나 폐·공기를 고쳐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문화재단이 소재한 부산시 남구 감만동을 중심으로 빈집 등 공간을 기부 받고 있다. '휴-안심 프로그램'은 감정 소요가 많은 예술인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고, 계약 등에 조언해주는 법률 상담도 제공할 것이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상에서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건강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산의 예술인 복지 사례는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지역에서 예술인 복지를 논할 때 '순순한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창작자가 존중받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예술 창작 생태계를 바탕으로 향후 체계적인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배려와 지원,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없는 길 찾아 떠나는 예술가의 여정에 짚신을 삼고, 그 발자국마다 예술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이 앞으로 부산예술인복지센터가 해야 할 일이다.



# 속살을 보다

68

[창작발간]

# <도시, 美를 입히다>에 담긴 도시이야기 조성태

72

[시각예술]

# 홀리스의 도시, 차별과 배제의 공간 김지호

76

[예술기획]

# 비밀기지를 통해 본 청년 문화의 시급한 고민들 박진명

82

[공연예술]

# 국악극 대청여관 정영진





도시, 美를 입히다 / 티엘갤러리

## <도시, 美를 입히다>에 담긴



# 도시이야기

글 | 조성태 · 도시문화, 역사, 경관 등을 주제로 도시만들기 작업 중  
사진제공 | 티엘갤러리



### 도시가 변화되는

### 과정속에서

### 사람들은

### 꼭

### 지키고 싶어했고,

### 지켜야

### 했던 것들을

### 놓치고

### 살아가고 있다

#### 문화골목

담을 헐어내고  
각종 재료를 덧대어  
독립적인 듯  
유기적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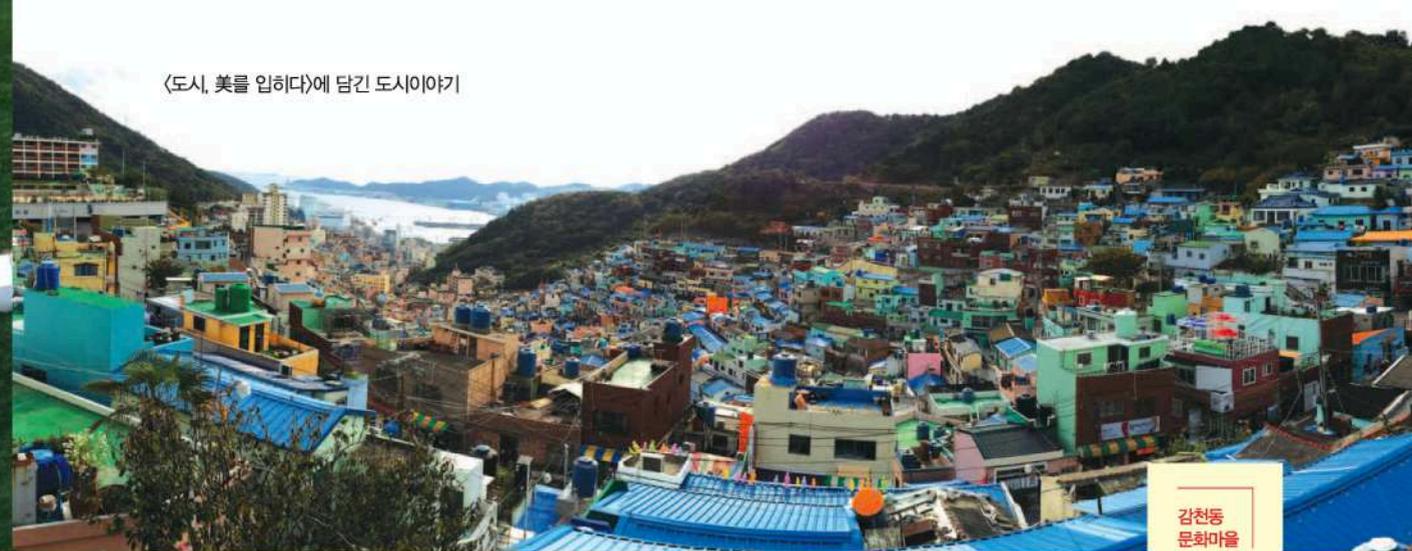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단순히 일정한 공간에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지 않고 삶의 무수한 흔적들이 퇴적되어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되는 도시의 참된 속성을 이야기하는 책이 티엘갤러리에서 발간되었다. '도시,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도시의 색, 길과 함께 공존하는 거리문화예술, 공원과 광장, 골목길 이야기, 현대 주거의 쟁점-아파트, 그리고 도시의 인지성을 내포하는 간판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늘 걷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작지만 알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본 책이 인쇄되어 나오기 전 2017년 1월 새해에 일주일 정도 이탈리아 주요 도시를 돌아보고 왔다. 아시아 여러 국가를 다녀온 경험 외에는 유럽도시를 첫 방문이라 무척이나 설레임을 안고 출발했고,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다. 이탈리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필자가 본 이탈리아의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세련된 도시라고 생각한다. 물론 몇몇의 지역에서는 치안의 불안감 등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방인이 바라본 시각에서는 그렇게 판단된다. 필자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현재까지도 부산에서 살고 있다. 내게 부산은 행복한 도시이며, 나의 모든 관계를 기억하는 도시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사라져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내가 살던 골목길, 나에게 익숙했던 도시의 색깔들, 추억어린 간판 등 아쉬움이 크지만 도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시가 변화되는 과정속에서 사람들은 꼭 지키고 싶어했고, 지켜야 했던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불현 듯 최근 다녀온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어떻게 옛 것들을 버리지 않고 현재와 조화롭게 공존시켰을까? 아마도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의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님께서는 부산의 영도다리를 지키고 싶어 하셨다. 그땐 왜 낡고 무너져가는 다리를 지키고자 하는지 몰랐다. 결국 개발의 논리속에 영도다리는 철거되었고, 원형은 사라졌지만 많은 부산 사람들이 기억하는 영도다리의 도개기능은 복원되었다. 이제와 영도다리의 역사,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마지막 만남의 장소임을 알게 되어 지도교수님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 그냥 평범한 다리의 보존이 아닌 부산의 역사와 추억임을 알게 되었다.





송상현 광장



감천동 문화마을

도시는 변화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잊지 않고 지켜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다행히도 현재 많은 도시에서 재생이라는 단어가 화두다. 낡고 오래된 것들을 무조건 버리고 개발하는 것이 아닌, 그 것이 가지는 가치를 인지하고 보전적 개발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생의 방법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접목을 통해 도시의 정주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책은 도시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기능, 속성의 올바른 작동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

책의 1부에는 '도시, 도시란'에서는 도시에 관한 인문, 문화, 사회적 측면을 다양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김형균 박사는 도시에서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함께 이를 접목한 도시재생의 실행방안을 논하였다. 동서대학교 송만웅 교수는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이 지역에 반영되는 환경적 논리가 중요함을 논하였고, 동명대학교 이승현 교수는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건축의 심미적 가치의 중요성을 얘기하였다.

2부 '도시의 색'에서는 도시의 인지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색채에 관한 실증적 고찰을 논하고 있다. 도시 정주환경의 이미지는 시설물의 형태와 색채에 의해 직관적으로 인지됨은 물론 특히 색채는 도시의 개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 부경대학교 김기환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각국의 도시들이 자신들만의 색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했고, 부산대학교 이진오 교수는 경관적 관점에서 부

산의 색채를 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이한석 교수는 부산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색을 자연지리적 환경에 기인함을 서술하였다.

3부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에서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논할 때 우선시 되는 가로환경 및 디자인이 중요함을 인지, 이의 가꿈을 통해 도시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우신구 교수는 도시의 가로시설물은 결국 시민이 주된 이용자로서의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건축가 안용대는 공공미술의 흥수 속에서 그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비판적으로 재정립했으며, 신라대학교 송낙웅 교수는 지역의 가로시설물을 디자인할 때 담아내야 하는 지역의 감성적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4부 '스트리트 스페이스(Street Space)'에서는 도시의 여가공간인 공원이나 광장은 시민들 생활환경의 일부가 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문화 콘텐츠와 결합하여 도시 정주환경의 창의적인 공간으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티엘갤러리의 구본호 관장은 공원과 광장을 시민들의 일상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동명대학교 백영제 교수는 도시 생활공간으로서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두인디앤씨 차옥진 소장은 부산 중앙광장 설계의 경험을 토대로 결국 공원의 주인은 시민들임을 중요하게 논하였으며, 부산시청 김철권 사무관은 일본의 공원과 광장의 사례를 통해 사용자의 시각과 활동에 따라서 변화되는 기능전환에 대해 얘기했다.

5부 '골목길(Alley)'에서는 최근 도시재생의 살아있는 현장이 되고 있는 부산의 감천동 문화마을, 산복도로의 비탈길(계단길), 초랑의 이바구길 등 다양한 형태로 남겨진 골목길에 담긴 이야기와 그곳을 가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신라대학교 김수태 교수는 '길과 길손'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온 길에는 시간과 추억이 녹아있음을 알려주고, 부산일보 최학림 논설위원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 부산의 골목길을 자신의 삶 이야기에 투영하여 소개함은 물론 그 속에 잔존해 있는 속살 깊은 추억을 살펴봤으며, 도시나눔의 조성태 소장은 골목길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주목했다.

6부 '아파트(Apt)'에서는 도시의 핵심 건축물로 인식되는 아파트를 주제로 텍스트와 미술작품을 콜라보 하여 설명하고 있다. 현대 주거형태의 중심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파트 숲 하늘은 어쩌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의과학대학교 박규환 교수는 1970년 본격적인 고시개발사업의 시점으로 증가되어진 아파트의 역사를 살펴봄, 편리한 주거공간임에도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부산일보 정달식 기자는 소통부재와 욕망의 상징이 된 아파트를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봤으며, 건축가 조형장은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어떤 관계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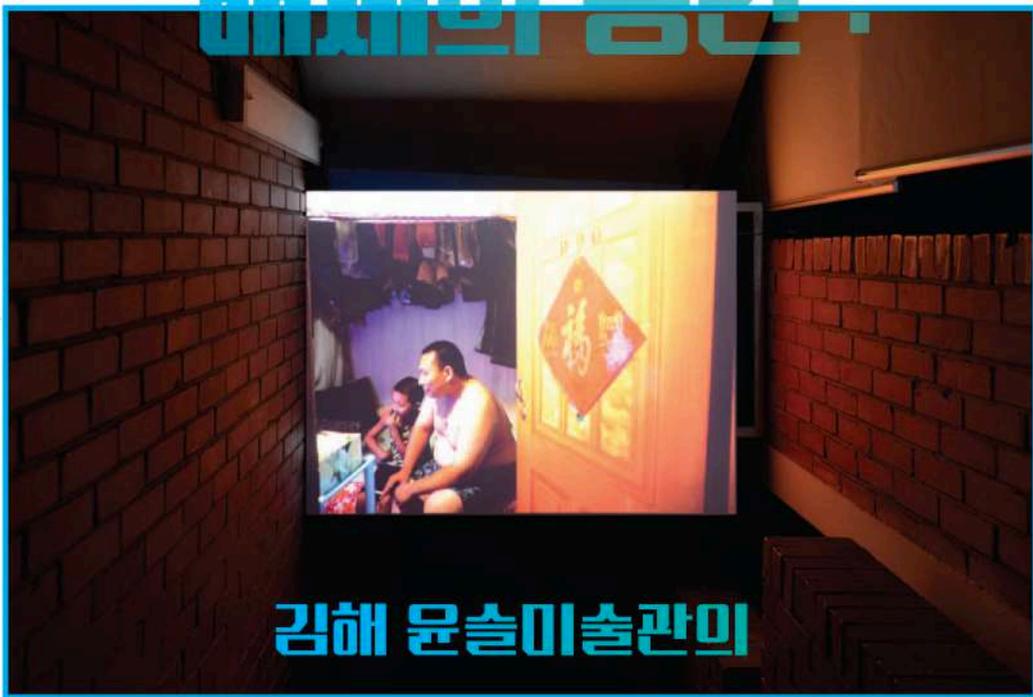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7부 '간판(Sign)'에서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간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제대로 된 표현을 하면서도 미적인 감각을 살려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제신문 정상도 논설위원은 현재 도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간판들이 삶의 공간인 도시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동명대학교 이영우 교수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평가에 중요한 기준은 간판을 인지하고 이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언급했고, 도시나눔 조성태 소장은 보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간판 만들기에 대해 세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했다.

책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지면의 제약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본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며 본 원고를 마감하고자 한다.

도시는 우리가 인지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과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 필자가 언급했던 우리의 도시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분명 본 책의 내용에 다양한 주제로 언급되어 담겨져 있다. 도시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3호 속살을보다 [창작발전] 지역 출판이 나아갈 길에서 디자인 편집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독자님들에게 혼돈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홈리스의 도시, 차별과 배제의 공간 :



## <홈리스의 도시 : The City of Homeless>

글 | 김지호 · 현)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미술관교육연구소ARTO 대표

사진제공 | (재)김해문화의전당

전시장 김해문화의전당 미술미술관 제1전시실

전시일정 2017. 3. 7. ~ 26.

주최·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해문화의전당, 목홍균 큐레이터

얼마 전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탄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의식의 실천 뿐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잠시 접어두었던 '자유', '인권', '공공성' 등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시점에 김해 미술미술관의 전시 <홈리스의 도시 : The City of Homeless>는 '시민성'과 '공공성', '도시'와 '시민',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 '권리', '인권' 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다각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홈리스의 도시>는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실 공모사업 우수전시로 선정된 독립큐레이터 목홍균의 기획으로 10개국 15작가들이 참여하였다. <홈리스의 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홈리스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홈리스의 삶을 접근한다. 이 전시를 통해 큐레이터는 홈리스, 집(물리적)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회, 국가뿐 아니라 유무형 인식의 연장선에서도 논의 한다. 이 전시는 홈리스의 삶을 통해 계급 문제, 실업 문제, 가족의 붕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고, 개인의 상실, 기억과 경험, 시간과 공간의 교차적 공간으로서 집에 대한 사유를 넓히기도 하고,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적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공공장소인 역전,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벤치를 점유하고 있는 홈리스를 마주하기 쉽다. 그들에 대한 우리 시선은 어디쯤에 있을까?

노숙(露宿) 또는 홈리스(영어: homeless)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정해진 주거 없이 공원, 길거리, 지하철역, 대합실 등을 거처로 삼는, 도시에서 생활환경이 가장 나쁜 계층을 지칭한다. 한국에서 노숙자, 홈리스라는 단어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등장한 단어로, 그 이전에 역이나 지하도 주변에서 노



숙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 용어는 '부랑인'이었다. 결국 노숙자는 경제적 최하위계층으로 도시의 구성원으로 공인되기보다 스펙터클한 도시경관과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배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파비아 브런징 (Fabian Brunsing, 독일)의 1분짜리 영상작품인 <돈 내고 앉는 유료의자>는 뾰족한 스파이크가 설치된 공원벤치가 보이고, 뒤이어 등장한 한 남성이 동전을 넣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동전이 들어간 벤치의 스파이크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서 앉을 수 있게 되자 남성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본다. 얼마 후 벤치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면 남성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벤치를 뜨고, 아무도 앉을 수 없도록 스파이크가 다시 벤치면 위로 올라온다. 이후 더럽고 불쾌한 노숙자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시민들이 환호하는 글이 올라온다. 영상설치 옆에는 작은 책자형태로 된 <안티 홈리스 벤치> 작품도 있다. 이 책은 서울시내 공원에 설치된 벤치들의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벤치들은 노숙자들이 누울 수 없도록 곡선으로 굽어 있거나, 가운데가 솟아 있는 등의 칸막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레아 보로메오 (Leah Borrromeo, 영국)의 1분 5초 동영상 <Space not Spikes>는 작가와 친구들은 상점들 앞에 설치된 스파이크 위에 간이침대와 미니책장을 만들어 노숙자들의 쉼터로 꾸미는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최근 몇 년 사이 런던, 뉴욕 등의 대도시 건물 입

구(엄밀히 공공공간임)에 노숙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쇠 스파이크를 바닥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노숙자들이 건물 주위에 진을 치고 머물면서 생기는 악취와 불쾌감 때문에 그 건물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홈리스들은 공공 공간(공원, 지하철, 역대합실 등)을 사유화하여 정주한다. 파비아양 브런칭과 레오 보로메오는 홈리스들이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공 공간' 활용방식에 대한 실험이다. 파비아양 브런칭의 작품에 등장한 스파이크 벤치와 칸막이 벤치는 '공공성의 유지'에 우위를 둔 실험이다. '공공성의 유지'가 목적인 벤치는 오직 돈이 있어야 사용 가능해진다. 반면 레오 보로메오는 자본가들에 의해 사유화된 공적 공간을 홈리스에게 돌려주는 실험이다. 두 작가는 이타심이 결여된 '공공성'은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고, 소수자를 감시하고 배제하는 '다수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꽃무늬천으로 덮힌 긴 평상에 앉으면 바람에 흩날리는 살구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거대한 사진과 함께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상영하는 비디오를 볼 수 있다. 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 외도, 등에 못이겨 모두 어린 자식들을 뒤로하고 집을 떠나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 자식버리고 간 모진 여자로 낙인 찍혀야 하는 여성의 삶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조영주작가의 <가정상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차별적 시선과 가정의 의미를 재조명 하며 그들과 소통을 나누고자 한다.

다니엘라 오르티즈 (Daniela Ortize, 페루)의 <97명의 가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은 97컷의 사진을 관객들에게



<홈리스의 도시 : The City of Homeless>

홈리스의 도시, 차별과 배제의 공간



무심하게 펼쳐 보여준다. 일체의 조작이 없는 이 사진은 주로 백인 엘리트 가족들의 모습이 담긴 일상적이거나 특별 한 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유색인종 피부를 가진 가정부와 노동자들이 주변인으로 흐릿하게 언뜻 언뜻 보여진다. 작가는 백인 가정 내에서 배제되고 차별적이 유색인 육체노동자들의 모습을 흐릿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있는 계층적, 인종적 차별의 의미를 드러내 준다.

중국 출신의 싱가포르작가 심치인의 10분짜리 단채널 비디오 <취족>은 중국 지하방공호와 기타 건물 지하에 거주하는 '취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여준다. 무관심과 폐허를 상징하는 지하공간의 삶 속에서도 구역구역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성공해서 지상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등장한다. 북경 내에는 건물의 1/3에 해당하는 6000개의

아파트나 대형건물 지하실과 방공호가 있다. 이곳은 좁고 어두운 미로 같은 통로를 따라 1평에서 2평 남짓의 좁은 공간으로 창문이나 문이 없는 집이 부지기수이고, 보통 30가구 이상이 하나의 공용욕실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불량주거 공간이다.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청년은 영화배우의 꿈을 실현하고자 작은 소도시에서의 경찰직을 포기하고 북경에 와서 단역배우를 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간간이 거리에서 액세서리를 팔기 때문에 주거비가 싼 지하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청년이 거주하는 공간은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으로 침대 매트리스와 물건이 담긴 보따리와 옷가지가 전부이다. 청년은 자신처럼 지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이유로 고향을 떠나 북경으로 이주했고,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이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한다. 소위 '취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라는 국가 시스템 변화로 발생한 희생자들이다. 일자리가 없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상경한 중국의 농공민들은 대도시에서 가난한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였다. 오늘날 북경의 서비스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북경의 치솟은 물가와 집값을 감당 할 수 없어 지상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한 채 쥐처럼 도시 공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거대도시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홈리스는 수많은 도시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실상 국가 정치 경제정책의 실패로 등장한 홈리스에 대한 배려와 도움은 고사하고 차별과 배제로 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과장일까? 홈리스 단상을 담아내는 현대사회, 도시, 집과 거주 방식을 돌아보면 결국 홈리스는 우리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동반자들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이타심과 포퓰리즘(Populism)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성숙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홈리스의 도시>는 도시공동체 일원으로 이해와 배려의 자세에서 '시민성', '공공성'을 다시 점검하길 당부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  
문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현실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 청년문화 지원 조례 3년, 청년들의 여전한 고군분투

2015년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청년문화지원조례)」가 제정되고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 조례는 2010년을 기점으로 활동하던 청년예술단체와 기획자들이 협업을 바탕으로 부산화촌프로젝트, 부산청년문화수도 등 지역에서 청년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던 활동과 그 성과에 탄력을 받아 제정되었다. 그 시기에 필자는 장르나 예술 중심이 아니라 교류와 일상 중심의 '생활기획공간 통'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여러 청년 기획자·예술가 그룹과 주민·청년들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청년문화지원조례의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그 조례에 근거한 청년문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이기도 하니 '청년문화'와의 인연이 깊다면 깊은 편이다. 행복과일청년을 만들어 아침 시간 공부방지를 컨셉으로 과일을 팔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로 활동한지 딱 10년이다. 그 10년 사이 행복과일청년 - 생활기획공간 통 - 개념미디어바삭 -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 구의원 출마 - 부산청년포럼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의 명함이 새겨졌다. 돌아보면 창업, 문화공간 운영, 미디어활동, 직접 정치 참여, 문화기획으로 활동의 내용이 산만하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이주민-선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부산과 지역의 이야기를 잡지나 책으로 묶는 일, 청년과 관련한

조사 및 인터뷰 등 내용간의 연결고리가 별로 없기도 하다. 주제나 형식적으로는 산만한 이 활동들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명쾌한 하나의 맥락으로 환원된다. 한 명의 청년으로서 스스로 지역에서 자리를 찾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이라고 중간 세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그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아마 대부분 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현실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각자의 고군분투 속에 있을 주변 청년들의 생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이유다.

###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가 인큐베이팅, 비밀기지

청춘남녀꽃잠공간 비밀기지. 이름 한 번 요란스럽다. 2015년 생긴 이 공간은 이름에 걸맞게 돈이 아니면 '재미'라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임이나 행사 공간이 필요한 단체에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청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강좌나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개별 단체 활동의 막막함을 덜고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반상회도 개최한다. 청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바탕으로 한 강좌이자 대안대학 '해라클래스(DO IT CLASS)'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진행하고 있고, 2016년 지속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5개의 청년 단체들을 인터뷰해 만든 책 '싸라있나'에 이어 2017년에는 전국의 10여 개 청년단체를



# 기획,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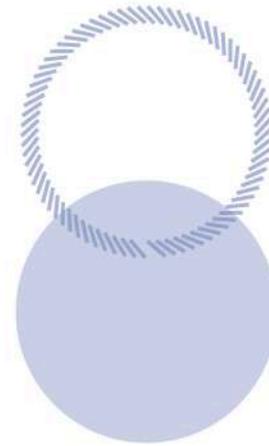
속살을 보다

‘생계’라는 벽에 부딪혀  
청년 활동이 소멸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 상황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중요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찾아 인터뷰하고 기록하는 ‘청춘순례’를 진행했다. 부산의 청년관련 활동과 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도에 담아 ‘B-MAP’을 만들었으며 청년 남녀들의 솔로탈출을 위한 오작고 프로젝트인 ‘남들은 봄, 나만 겨울’에는 수십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한다. 프로그램의 작명에서부터 유쾌함이 가득 묻어난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주축이 된 문화단체, 대외활동단체, 예술단체 등의 네트워크인 헛짓거리 반상회가 비밀기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 돈안되는 모든 것을 ‘헛짓거리’로 치부하는 기성의 시각에 반하며 제대로 ‘헛짓거리’를 해보자고 활동단체들을 찾아서 초대하고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청년이 주축이 되는 거점공간 운영자들 간의 반상회를 새롭게 시작해 운영사례 공유, 홍보 품앗이, 공동 사업 등을 구상한다고 한다. 비밀기지의 벽에는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있는 단체들의 이름이 벽면 가득 붙어 있다.

이처럼 비밀기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청년 주체들을 모아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내외의 의미 있는 사례를 탐색해 기록에 남기며, 고민을 공유하며 활동의 지속을 위한 공리를 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와 지원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스스로의 관심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만든 단체들의 활동들은 초기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비슷한 활동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 단체 유지를 위한 운영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2년 내에 활동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요즘처럼 청년 스스로가 선택한 활동과 생계의 고리가 더 절실히 진 시기에는 2년을 버티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다.

비밀기지를 통해 본 청년 문화의 시급한 고민들



청년 주체이자 민간 주체인 비밀기지의 교류, 탐색, 기록 활동은 사실 청년들의 자생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어야 할 부분이다. ‘생계’라는 벽에 부딪혀 청년 활동이 소멸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 상황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중요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재능이나 가치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공모사업, 공간 제공 등)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상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리닝센터,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창업카페, 콘텐츠클리앙, 대학가창조발전소 등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지원 공간이 생겨났지만 대부분 기획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비밀기지의 적극적인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스스로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겪는 답답함과 활동의 지속을 위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지원체계가 아직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가 신경을 안 써주니 자기가 알아서 해보는 자기인큐베이팅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내외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들을 잘 연결하고 있지만 이후에 이런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교류에 참여하는 청년 단체들 대부분이 신생단체이거나 2, 3년 내의 활동에 치중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서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는 장점이지만, 지속가능한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현실적인 고민에는 취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과 연계성이 있는 앞선 활동, 단체나 기업을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강화하고 일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매개하는 역할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실험성과 창조성을  
 지닌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지속적 활동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부산의 문화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 청년문화 현장에서 필요한 시급한 고민들

지역에서 종종 만들어지는 성과들은 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것보다는 민간의 노력에 관의 지원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청년 문화의 영역에서는 그 주체들 간의 교류에 힘입어 에너지가 응축되고 분출되는 경우가 많다. 개별 영역을 비롯해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환경과 지원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개별 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주변의 청년들과 지역에서의 역할과 고민을 나눌 때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기회가 만들어진다. 달리 말하면 청년문화 영역에서 '교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는 비밀기지처럼 청년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가야 할 문제다. 개별 활동만큼이나 공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부산에서는 청년문화 지원 조례,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 등 문화와 일자리라는 영역별 조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주거와 복지 등을 포괄하는 국회의 청년기본법, 부산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청년 관련 종합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문화 지원 조례는 청년 대상 문화사업 거의 모두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조례가 생기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일반은 기타 복지나 주거 등과 통합적인 차원에서 다루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문화지원조례'의 존재는 필요가

### 청년문화론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청년 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없어질 것인가? 오히려 향유와 교육 등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문화는 기본조례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실험성과 기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민이 담긴 창작과 기획 활동으로 좁혀서 애초에 조례가 제정된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밀기지의 네트워크를 통해 봤을 때 청년들의 활동이 대외활동, 창작활동, 유사영리활동, 창업, 비영리 활동 등이 뒤섞이고 그 세부 내용도 공연, 팟캐스트, 청년 거점 공간, 게스트하우스, 잡지, 청소년교육, 영상, 도시재생 등 너무 다양하다. 청년들의 환경이 급변하고 주체들의 생성과 소멸도 빠른 시대에는 단순히 장르적으로 청년들의 실험과 창조를 재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어떤 활동과 방식을 정책적 범위로 볼 것인지를 2, 3년에 한 번씩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지원조례 제정 3년 차인 지금, 청년기본조례를 목전에 둔 지금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활동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정리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또한 논의를 통해 좁혀진 활동영역과 그 주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절적 공모라는 형식 외의 지원제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그 간격이 10년 이상의 공백도 허다하다. 지역에서 청년 주체가 빠르게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는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문화영역에서의 청년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3년의 활동에 대한 공개 토론 등의 평가를 통해 2~3팀을 선정해 3년 이상의 활동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 현장에서의 답답함과 고민을 바탕으로 하는 교류와 네트워크, 해당 영역의 파트너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 아카데미는 관이 직접 수행해서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현장의 고민이 중요한 이 두 영역은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환경에 대해 숙고하고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지닌 민간을 지원하면서 더불어 성과를 내는 것이 마땅하고 또 효과적인 영역일 것이다.

실험성과 창조성을 지닌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지속적 활동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부산의 문화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  
270여 석을 갖춘 극장이  
사흘간 매진되고  
그 청중의 눈물과 콧물을  
쓱 빼 놓았다면 그 작품의  
효용성은 매우 높았다고  
평가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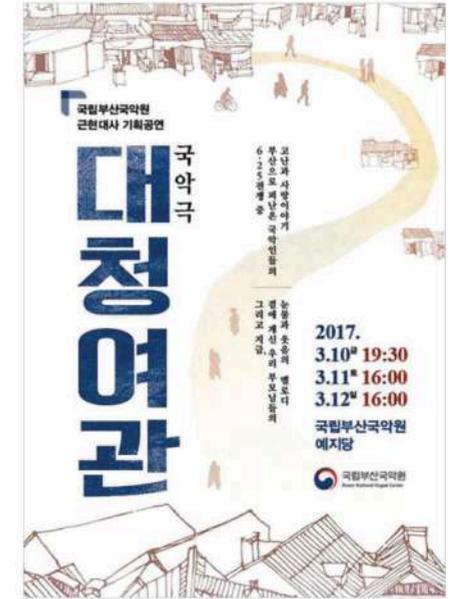
# 국악극 대청여관

글 | 정영진 · 경성대 한국문화연구소 교수, 부산시 문화재 위원

사진제공 | 국립부산국악원

누구나 연주회장을 찾아가는 때는 나름의 기대감을 안고 간다. 그리고 그 기대치에 근접한 공연을 접하였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내 그 장면이 재생되는 행복감에 젖어 든다. 그날의 공연이 바로 그러하였다.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 사흘간 공연한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대청여관>은 그렇게 나의 예민한 감성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특히 시대적 배경과 삶을 같이해온 베이비붐 세대인 50-60대는 무대의 이야기가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국악극 대청여관은 아련한 지난날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음악은 동양혈맥하고 유통정신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혈맥을 뛰게 하는 인간 삶의 연속성은 음악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니 음악이 혈맥을 뛰게 한다는 말이다. 여하간 삶 속에 음악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을 흐르게 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그 감성의 발로는 바로 공감이다. 나의 감성을 충동하게 한 것 그것은 무대의 연희에 공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그 무대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국악극 <대청여관>이 그러하였다.

오늘날의 예술은 대중의 곁에 있어야 하며 또 시대적 흐름과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대중과 괴리된 예술과 시대적 흐름을 품지 못한 예술은 쇠퇴하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다. 즉 오늘날 모든 예술은 대중의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다. 대중의 것이 된다고 해서 저급함 혹은 상대적 평가 절하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예술적 표현도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대중과 특정 엘리트가 구분되지 않는다. 즉 대중이 곧 세상의 전부이다. 그 전부의 대중이 예술문화 대부분을 향유하고 소비한다. 대중의 곁에서 대중의 감성을 끌어올린 그 어떤 작품은 분명 대중적이며 대중과 시대적 호흡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국악극 <대청여관>이 그것이었다.



또한, 대중은 차차로 전통의 변용(變容)을 통한 세련된 무대를 원하고 있다. 변용은 새로움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성향을 띠어야 한다. 변용 혹은 변전(變轉)이 과거로의 회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그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 때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지난날 전통에 채색만 달린 변용이 대부분이다. 국악이 분명 과거의 유산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과거의 것만 재현하는 것에 골몰하는 국악은 이미 박제된 유산이다. 그래서 변용은 국악에 더욱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지 않는 단순한 과거의 재현은 더 이상 대중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의 것도 아니다. 과거 유산의 시대적 변용은 곧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 시대 국악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 무대가 국악극 <대청여관>이었다.

그리고 대중은 예술적 가치를 동질감과 공감에 둔다. 자신과 소통되어 공감을 갖는 예술이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했다고 믿는다. 사실이 그러하다. 예술이 가치 있으려면 수용자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의 효용성과도 결부된다. 어떤 장르의 결과물이 평가받을 때는 그 작품의 예술성 보다는 수용자의 공감에 더 비중을 둔다. 그것이 곧 효용성이다. 270여 석을 갖춘 극장이 사흘간 매진되고 그 청중의 눈물과 콧물을 썩 빼 놓았다면 그 작품의 효용성은 매우 높았다고 평가 받을 것이다. 그런 무대가 바로 국악극 <대청여관>이었다

지난 2017년 3월에 공연한 국립부산국악원의 기획공연 국악극 <대청여관>은 앙코르(재청) 무대이다. 즉, 지난해 2016년 9월 30일~10월 2일 사흘간 공연한 대청여관의 후속 버전이다. 특히 이 작품은 부산과 영남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공연 시놉시스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것은 열림의 문화행정이 빛을 발하였다는 것이고 생활 속의 국악을 말하는 국악원의 주문이 실현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산에 있는 국악원이다. 지역의 국악원은 그 지역의 기존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진열되는 제품이

그 지역의 생산물도 적당히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밝혀 말하면 그 지역의 색채가 가미된 작품들을 발굴하여 무대에 올리는 작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다. 중앙문화의 확산과 지역문화의 수용이 지역 국악원의 순기능이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국악극 <대청여관>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국악극 <대청여관>은 다시 되씹어 보아야 할 몇몇 속사정들이 있다. 극은 배우의 예술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연희로 객석과 상호작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설익은 연기력이 드러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 물론 무대를 꾸민 그들은 음악전공이지 연극전공은 아니다. 하지만 청중은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깔고 그 무대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만함을 못 느끼게 했다는 것은 분명 다르다. 그만하면 이라는 것은 그 작품도 그만한 수준밖에 안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작품은 극이다. 즉 연극적 요소가 전체 무대의 질을 좌우한다. 주연 혹은 중요 조연 몇은 전문인을 기용했으면 좀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 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제

2장 1950년의 한 장면 "그날이 오면"은 2008년 국립부산국악원의 개원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의 주역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 온 서울 및 경향각지의 국악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혹 이러한 공연물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고착화될까 염려한다. 오늘날 부산의 국악계를 키워온 재야의 선생님들이 여럿 계신다. 혹 그분들의 노고가 잊혀 질까 염려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다.

봄날은 간다. 아니 가고 있다. 이 말은 세월이 간다는 말이고 세월이 간다는 말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다. 시대가 바뀌면 분명 유행도 바뀌고 문화적 양태도 바뀐다는 것이다. 과거의 유산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바로 봄날이 가고 있음에 비유한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통이라는 문화장르도 시대적 변천의 옷을 수없이 갈아입은 것들이다. 변화 혹은 변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이 전통을 거부하고 버리자는 말로 오해할 길 바라다. 올곧은 전통은 올곧은 다음 세대의 전통을 낳는다는 그저 평범한 진리를 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작품만을 두고 얘기하는 이런저런 제반의 속사정은 제 뒀을 다하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역할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이미 이 작품이 지방 순회공연까지 계획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당분간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부산과 영남지역의 시민은 행복하다. 그 행복은 그들의 노력에 비례함을 잊지 말길 바라다.



# 소리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없다

글 | 팽명도 · 영화미디어 감독

근래 쉬고 있던 가운데, 지인으로부터 문화수기를 써보겠냐는 제안이 왔다. 분량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난 가만 생각에 잠겼다. 첫째는 아무리 4페이지 분량을 13포인트로 적는다 해도 내 인생을 전부 써도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스스로에게 의문이 가는 분량이었고, 둘째는 난 장애인이고 나한테 문화 수기를 부탁을 한다는 건 장애인이 직접 느낀 문화에 대한 수기를 써 달라는 것인데, 부산에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부산에 장애인들의 문화... 과연 있을까? 다시 이야기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그런 곳에서 짜여 준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기며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체제가 확실히 준비 되어 있는 문화 말이다.

계속 드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난 누구 위한다는 표현을 쓰는 걸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싫어하지만,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표현이라 쓰도록 하겠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영화관에 들어가면 앉을 수 있는 자리 선택권이 있는가? 맨 뒷 좌석이 아니면 맨 앞 좌석에만 앉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영화관 구조상 비장애인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그렇고 내가 뺨뺨이 소갈딱지 같은 생각이라서 드는 생각이라 해 두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영관 좌석 중간쯤에는 장애인석으로 하나 만들어 놓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더 웃지도 못할 씁쓸한 이야기는 영화관 뒷공간을 장애인석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관도 부산 시내에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영화관에 가면 목이 아프더라도 자막을 보려면 맨 앞줄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영화 스크린을 멀리서 봐도 괜찮다 싶으면 맨 뒷좌석에 가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영화관에 장애인석은 영화관별로 장애인석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서 돈을 내고 보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복지할인이 주어지지 않는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해놓은 혜택으로 대신해 주려는 것이 지속된다면 그 나라의 문화는 이미 아무 발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내가 보았고 느꼈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 보았는데 이것은 아주 일률 단편적 부분이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것들은 문화를 누리는 것, 즉 문화 향유와 관련된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 글 초반에 잠깐 얘기했듯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문화는 누리는 것과 동시에 또한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체제가 준비되어 있는 공간 및 놀이터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졌다. 난 사실 약 12~3년 전 우연한 기회로 어떤 단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년 명도> 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은 부산에서는 제일 처음 시도했던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 내용의 주제는 대략 이랬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청년 명도 라는 인간에 대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또 사실이란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영상을 만들었던 한 장애인으로서 들



작품 <청년 명도>, 팽명도 / 2004년 / 12분 / DV / 다큐

었던 생각은 한계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카메라에 내 얼굴이 비추니까 마냥 좋았어 했다만사도 그 후에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획, 촬영, 편집을 접해보니 애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내가 원하는 소재와 기획은 길 위를 지나가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인 촬영과 편집... 처음에는 목직한 카메라 한쪽에 붙어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찍히는 줄 알고 그냥 찍었다. 그러다 조금씩 내가 카메라 앵글에 비추는 것이 화면구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점점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는 횟수보다 카메라 앵글에 비치는 화면을 보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보는 TV 화면에 나오는 구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쁜 구도로 찍을지 고민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내가 카메라 앵글로 보는 그 피사체가 보기 좋은 사이즈면 좋다는 것이다. 그런 사이즈를 영상을 찍어내는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싶겠는가? 하고 싶다는 것이다. 사이즈 좋은 샷을 잡기 위해서는 영상에 비장애인들의 도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얘기들이 많았던 부분이다. 어디까지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말이다.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다. 왜냐면, 나중에 가서 누가 이 영상물을 만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방지하고 영상을 찍는 장애인 제작자의 생각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지원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술 영화의 독립성과 지원체제가 확실히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예술을 표현하고 독

립영화를 만들어 내는 장애인 영상 제작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 된 지원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혹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화성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같이 놀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 그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조성되어갈 수 있다는 확고한 마음과 의지들이 조금씩 모인다면 어떨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여야 된다면 미루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을까? 당연히 미루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허나, 누구 한 명은 그 일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난 앞으로 장애인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 영상을 좋아하고 표현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많아질 것이라 믿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욱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구분 지어진 상태, 혹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만 하는 이야기 형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사회에 얘기하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사회 밖으로 나와 소리치게 될 것이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이 사회에 숨 쉬며 살아있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선을 긋고 구시대적인 사상을 가진 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싶다고 말이다!

# 2016년도 부산문화재단 돌아보기

“일상이 문화가 되고, 예술로 넘치는 도시 부산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2016년도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은 물론, 부산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고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했던 부분을 과감히 평가하여, 자기반성을 통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다. 문화예술로 부산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미션 아래, 부산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청년문화를 통한 도시 활력, 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활성화 등 45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작지만 강한 재단'이라는 경영철학으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개선해나가는 한 해가 되었다. 주목해 볼 성과로는 재단 자체 재원부족을 해소하고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모색했다.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의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기획형 메세나 사업 시범운영>,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항토기업 지역문화사랑 캠페인 광고매체 활용>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7천만 원가량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다.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멕시코 국제문화상 특별상을, 지역협력형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 부산예술인복지의 체감온도 높다

순수 예술창작 활동을 위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2016년도 한 해에 1400명의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하였다. 부산예술인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술인 복지의 체감온도를 높였다. 부산지역 문화예술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문화정책 <문화로 통> 포럼 개최,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기획안) 작성 컨설팅 개최, 청년연출가 지원 관련 나이 제한 기준을 완화, 홍보활성화 계획 수립,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 청년문화, 부산에서 열정을 꽃피우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청년문화 생태계 구현을 위하여 전담부서 청년문화사업추진팀(T/F)을 지속 운영, 청년문화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인력양성,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부산음악창작소>, SH 공사 <플랫폼 창동 61> 등과 선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청년뮤지컬페스티벌 <라이브스퀘어>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예술가 맞춤형 사업으로 부산의 청년이 주도하고, 부산만의 특색 있는 청년문화 활동이 추진되었다.



### 일상에 문화예술을 입히고, 스스로 참여하다

일상생활이 생활문화가 되고, 예술로 넘치는 도시 부산을 위해 추진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를 지역·장르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총 381개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스스로 참여하는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부산시민의 생활문화 체감도를 제고시키고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은 인종·민족·성별·가족문화 등 문화다양성 영역을 확장시키고, 작년대비 9,0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실버문화복지>의 문화복지 사업과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가을독서문화축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였다.



### 지속가능한 도시의 원동력 창작공간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 원동력인 창작공간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를 창출하였다. 유휴공간 폐교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는 작가 오픈스튜디오, 시민참여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예술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예술공동체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감만창의문화촌 5층에 위치한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최적의 연습환경을 제공하여 대관 1,747회, 23,748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남겼다. 특히, 창작공간의 우수사례를 연구·조사하기 위해 서울 등 타지역의 문화예술기관, 행정기관의 57회 벤치마킹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의 힘

2013년도부터 추진해온 한·일 평화의 상징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신청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총 111건(333점)의 등재 신청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해 일본NPO 법인 조선통시사연지연락협의회와 함께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3일간 공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국립해양박물관 인형전시(4월), 조선통신사 국제학술포럼 개최(5월), 시즈오카 인형전시(9월) 등을 전개하였다. 해외진출프로젝트 기획사업으로 청년 시각예술 예술가 12명이 중국 베이징, 상하이 주요 문화공간 방문,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을 통해 독일 베타니엔 창작공간,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파견하는 등 예술인들의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앞으로의 부산문화재단

2016년 부산문화재단은 조직경쟁력 강화, 단계적 경영개선, 직원 역량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였으며, 재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성화,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 앞으로도 부산문화재단은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 부산"의 비전을 되새겨,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또한, 부산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예술인의 소통창구 등의 역할로 모든 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 2017년 부산문화재단 눈여겨보아야할 Point!

## #1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복합문화공간 [F1963] 운영



**시설규모** 고려제강 舊 수영공장 폐산업시설(9,570㎡)  
내 일부 공간(2,000㎡, 약 600평)  
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2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5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추진



조선통신사 관련 등재 기록물 111건 333점  
(한국 63건 123점, 일본 48건 209점)  
유네스코 등재 관련 행사 개최 및 홍보 추진  
(9~11월 결과 발표)

## #6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문화공간



홍티아트센터 개방 → 이동식 카페, 체육시설 조성  
사상인디스테이션 공간드림 →  
회의가 필요하신 분에게 공간을 무료로 드립니다.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사랑방, 도시철도 북하우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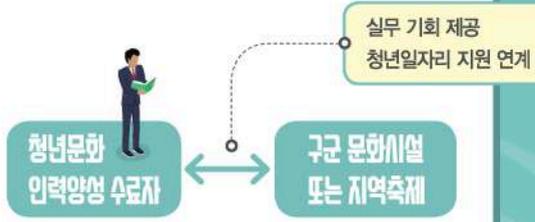
## #3 광역생활문화센터 개관(11월)



원도심 지역 청자빌딩을 리모델링  
→ 생활문화동아리 거점공간 및 연습공간 제공 등

## #4 청년문화사업 활성화

대학문화 활성화 지원 <굿 아이디어> 공모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 아트마켓 장소 확대 →  
서면 동천로 일대, 영도 흰여울마을길  
청년예술인 공공시설 축제 매칭



## #7 세계유산 피란수도 시민아카데미 추진



피란수도 부산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피란역사 토크콘서트 개최

## #8 혁신발전추진단 구성



재단 중장기적 새로운 조직발전 방향 모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중심으로 한 4개의 전략개발단위 구성

## 〈감만동의 재발견〉

#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



글 | 이일록 · 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팀 감만창의문화촌 PM

감만동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바닷가를 끼고 어업 중심이었던 지역이 1920년대 매립을 계기로 반농반어업의 공간이 되었다. 이후 60년대 성장기업, 연합철강, 극동정유, 동명목재 등의 공장건설로 어장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후 지역민들의 생계는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렇게 수 십 년을 지내온 감만동은 또 다시 변화의 시점에서 있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이라는 과제를 놓고 어떻게 변해갈지 그 변곡점에 서 있다.

###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의 시작과 구성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는 위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16년 8월말 감만1동지역의 약 95%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형 재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국토부 발표 이후 감만창의문화촌이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사실 지역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은 근 10년간 지역 내 사람들 사이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실제 확정 발표를 접하고 나니 앞으로 지역이 어떤 변화를 거칠 것인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감만창의문화촌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을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렇게 해서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는 총 3가지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유적과 구비문학 등 기층에 깔려 있는 지역민의 역사를 조사하는 〈감만동 민속문화 조사〉, 감만동의 표본을 채집해서 전시하는 〈감만동 발굴展〉,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현재적 삶 속에서 일상의 기억과 사물을 수집하여 기록하는 작업인 〈감만풍정〉이 그것이다. 2017년 약 1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는 이후 결과자료집이 발간되어 향후 사업 연계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리서치 작업을 통하여 감만동이 가진 자원을 발굴,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감만동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감만동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감만동 발굴展**

감만동 발굴展은 감만동의 오래된 건물과 골목에서 채집한 표본들과 동네 이곳저곳에서 발굴한 오브제들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풍경과 대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감만동이 간직한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기획되었다. 작업을 진행한 양자주 작가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감만동 일대를 리서치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만동 풍경과 이야기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발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양자주 작가는 페인팅을 기반으로 퍼포먼스, 설치, 스트리트아트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공간과 장르적인 영역을 넘어 회화의 연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다. 서울을 비롯하여 베이징, 베를린 외에도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도시의 이야기를 작가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전시의 오픈과 더불어 진행된 감만동 투어에는 총 2회차 진행에 약 40명의 예술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였다. 전시에 사용된 오브젝트들이 발굴된 현장을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색다른 경험을 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직접 눈으로 둘러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투어에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변화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투어가 되었다.

〈감만동 발굴展〉을 진행한 양자주 작가에게 작가의 포트폴리오에서 감만동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보았다.



감만동 발굴展, 감만사랑방

"이전에 온천장이나 문헌 등 다양한 곳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초량 1925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감만동 작업을 하면서 감만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10여 년간 재개발 논의가 되면서 집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목도 훨씬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모습이 시각예술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오래된 판잣집이 주는 물질적인 느낌과 시각적인 느낌은 작가로서의 작업욕을 자극하는 오브제가 되는 거지요"

〈감만동 발굴展〉을 마무리하면서 감만동을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웠던 작가는 당분간 감만동을 대상으로 한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감만1동에 이어 감만2동에서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자주 작가가 그려낼 감만동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가 된다.



**감만동의 현재 과거 미래**

어느 자리에선가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옛날의 감만동은 없는거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의 동네가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라는 새삼스런 자각과 더불어 아쉬운 마음 혹은 서글픈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만동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던 것 같다. 어업 지역에서 반농반어업 지역으로, 또 어느 순간은 공업지역으로, 이제는 대규모 주거지로의 변모를 준비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지역의 변화 속에서 창작공간인 감만창의문화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본다. 지금 진행하고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와 같은 작은 작업들이 어찌면 지역의



양자주 작가

기록을 남기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감만동을 봤을 때 감만동은 변해가지만 또 다른 감만동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는 기대도 들었다.

감만이라 했나요 바다를 따라 멋진 부두  
 감만이라 했나요 열심히 살아요  
 감만이라 했나요 볼거리가 많아요  
 감만에 오세요 언제나 즐거워

오늘도 감만동 주제가가 울려 퍼지는 23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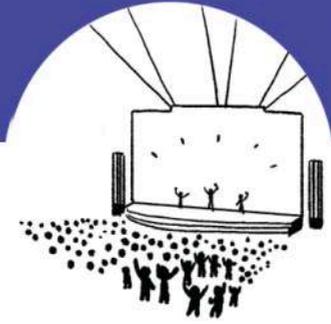


사진 하영문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본보기, 감만창의문화촌**

부산문화재단 감만창의문화촌은 부산 감만동의 대표 유휴 공간이었던 폐교를 예술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 창작공간 틈뚱방, 감만사랑방, 배움방,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5층)  
**주요프로그램 :**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지역밀착형 시민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예술인복지, 봄을 열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2017. 2. 28. (화) 감만창의문화촌

부산문화재단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간다. 빈집을 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반딧불이'사업, 예술인 치유를 위한 '휴-안심 프로그램', 예술인 법률자문, 예술인일자리 박람회 등 부산지역 예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36, 7258

**청년문화 네트워크 <부산청년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

2017. 3. 8. (수) 사상인디스테이션

지난 3월 8일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청년문화 네트워크 포럼-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부산발전연구원 오재환 연구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원향미(부산민예총 정책위원장), 송교성(강강이 예술마을 사무국장), 이연정(온댄스랩 대표) 3인이 토론을 맡아 진행하였다. 청년문화에 대한 정책과 문화예술 장르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홍티아트센터 <우당탕 뿌지곤 외장창> 릴레이 전시 개막**

2017. 3. 31. (금)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는 3월 31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입주 예술가 8인이 매달 개인전을 선보인다.이번 릴레이 전시는 <우당탕 뿌지곤 외장창>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소리와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표현했다. 첫 전시는 정윤선 <홍티 그 욕망 순환 속의 도시>로 홍티아트센터가 위치한 마을 '홍티'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간 동안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탐구를 제시하였다.

참여작가 | 정윤선, 김도형, 김윤아, 이경희, 김윤호, 김동찬, 박진영, 김자이

**생활 속에서, 거리에서 즐기는 문화로 풍성한 4월**

부산문화재단은 4월부터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예술가들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감만창의문화촌은 4월부터 7월까지 공예, 연극, 생활원에 등 4개의 장르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문화예술체험 활동 <고마 내가하까>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 영도 흰여울마을길과 신기산업에서는 거리예술축제(AREA051)와 청년예술가 작품 판매를 위한 아트페어(UNDER35), 아트마켓이 개최되었다. 재단은 거리예술, 생활문화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아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다.



달리는 부산문화, 이동형 차량 무대를 지원합니다.

- 지원형 : 무대시스템(음향포함), 운영인력 등 지원
- 차량지원형 : 무대시스템, 유류비 일부지원/음향, 운영인력 등 무대비용은 신청단체 부담

지원요건 : 생활문화 동아리 및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마을 축제 등

접수방법 : gongssi@bscf.or.kr로 신청서 발송

문의 : 문화사업팀 051-745-7253

뜨거운 예술의 열정이 내리쬐는 곳,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을 빌려드립니다.

위 치 : 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5층  
대관접수 : 2017. 3. 10. (금) ~ 6. 28. (수)

대관대상 : 부산지역 공연예술분야 예술가 및 단체 등  
기간 : 2/4분기, 2017. 4. 1. (토) ~ 6. 30. (금)

운영시간 : 월 ~ 토요일 (10:00 ~ 22:00)

휴 관 일 : 일요일, 법정 공휴일

신청하기 : 아르크 통합대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bang.arko.or.kr/)

\* 30일 이내의 일정까지만 신청 가능

문의 :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 051-745-7244~5

부산문화재단 5~6월 행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가락우리마당 부산시민공원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2017 조선통사 축제 용두산공원, 광복로 등 5/5~5/7	
14	15	16	17	18	19	20
우리가락우리마당 부산시민공원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해설사양성반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청년문화네트워크 포럼 사상인디스테이션 거리콘서트 40계단 테마거리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해설사양성반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21	22	23	24	25	26	27
우리가락우리마당 부산시민공원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해설사양성반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거리콘서트 40계단 테마거리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예술인 법률컨설팅 데이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해설사양성반	홍티예종2 홍티아트센터 거리예술x아트마켓 서면동천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광복로 일대 5/21~5/27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해설사양성반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거리콘서트 40계단 테마거리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김만창의문화촌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인디페스티벌 인디워크숍 사상인디스테이션
28	29	30	31	1	2	3
우리가락우리마당 부산시민공원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해설사양성반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거리콘서트 40계단 테마거리	해운대생활예술제 해운대문화회관 6/1~6/2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해설사양성반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금정생활예술제 금정산성마을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사하구생활예술제 울수도문화회관 6/2~6/4	홍티예종2 홍티아트센터
4	5	6	7	8	9	10
				거리콘서트 40계단 테마거리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11	12	13	14	15	16	17
			청년문화네트워크 포럼 사상인디스테이션 거리콘서트 40계단 테마거리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홍티아트센터 이어 달리기전 (김윤아작가) 6/16~7/4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18	19	20	21	22	23	24
			거리콘서트 40계단 테마거리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25	26	27	28	29	30	
	김만창의문화촌 오픈스튜디오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교양반		거리예술x아트마켓 서면동천로

#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 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찬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1. 후원혜택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2. 후원회원

- 일반회원 : 매월 1만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만~50만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원 이상 일사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원 이상을 일사불로 납부

## 3. 후원가입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051-745-7216)

#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부산문화재단



에서 부산문화재단을 검색해보세요

**혜택1**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받을 수 있다.

**혜택2**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 가능하다.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http://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김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3 E-mail. [aktw5555@bscf.or.kr](mailto:aktw5555@bscf.or.kr)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TEL. 051-744-7707 FAX. 051-744-7708-9  
[www.bscf.or.kr](http://www.bscf.or.kr)